

코스피	2481.12	코스닥	672.85
(-76.86)		(-20.91)	
금리 (연이율)	2.569	환율 (원/달러)	1472.40
(-0.060)		(+5.90)	



## ‘트럼프發 패닉셀’에 한국도 아시아도 휘청

코스피 3% 하락... 2500선 붕괴 공매도 첫날, 외국인 1.6조 ‘팔자’ 정치적 혼란·성장률 하향에 불신

달러당 원화값 1472.9원에 마감 나스닥·닛케이도 ‘블랙먼데이’

공매도 재개 첫날 트럼프가 쓴 ‘리세션 롤백(침체를 건 리시안롤백)’의 파편을 맞고 코스피 지수가 2480선대로 추락했다. 원화값은 1470원을 넘어섰다. 3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0% 하락한 2481.12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1월 6일(2488.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 지수는 3.01% 하락해 672.85로 마감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4월 2일)를 앞두고 우려가 커진데다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에 따른 국내 정치·경제 불안,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불안감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 가까이 물량을 받았지만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트럼프발 공포에 휘청이자 위험자산에서 받을 뻔 것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기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57.98)보다 76.86포인트(3.00%) 내린 2481.1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3.76)보다 20.91포인트(3.01%) 떨어진 672.8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술주 중심의 나스닥(-2.70%)을 비롯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6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97%)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미국의 성장 둔화 위험이 고조되자 큰손들은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1분기 미국 채권 수익률은 2.5%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받은 댄데는 외부 탓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이 약한 탓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예고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이라는 정치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영국 소재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제로 성장’(0.9%)을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등 한국 정치를 둘러싼 악재도 지수를 끌어내렸다. 씨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3시 30분 기준 달러당 원화값은 6.4원 오른 1472.9원에 마감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5% 하락한 3만5617.56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만 가권지수는 4.20% 추락해 2만695.90을 기록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5.56포인트(0.46%) 내린 3335.75로 장을 마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 승계 마무리

세 아들에 지분 절반 증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보유중인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다.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증여 후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으로 바뀐다. 삼형제는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한화측은 밝혔다. 정상적, 필수적 사업 활동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응적 결단이란 내부 평가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급하고 절실한 대규모 해외 투자 목적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승계와 연결시키는 억측과 왜곡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 4일~31일 평균 증가 기준) 규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지난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다음 달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추가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논란은 불식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이승용 기자 lsy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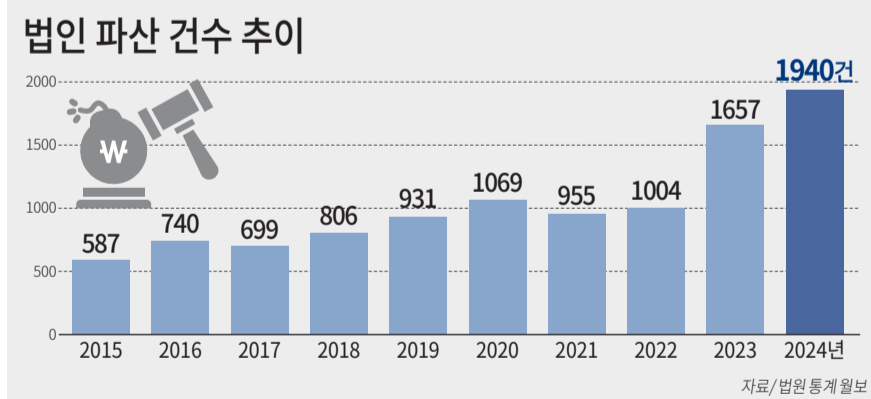
## 고금리·소비위축에 자영업자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치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줄줄이 연체 자영업자 절반은 다중채무자 전락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지갑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중소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이미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0.8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8%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0년 0.48% ▲2021년 0.36% ▲2022년 0.36% ▲2023년 0.48% ▲2024년 0.64%로 올랐다. 코로나19 시기 연체율보다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올해 1월 은행의 개인사



업자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10%p 높은 0.70%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20년 0.21%에서 2년 뒤인 2022년 0.26%로 소폭 오른 뒤 2024년 0.60%까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이 끊기고, 고금리에 소비까지 줄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들이 1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은행권으로 밀려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은행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1.99%에서 지난해 6월 7.01%까지 5%p가량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9%로 2020년(1.87%)보다 2배 이상 상승했

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1.70%로 2020년(3.91%)과 비교해 7.79%p 올랐다. 이는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6만1000명으로 56.5%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란 의미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한다. 통상은행 이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질수 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 현재 사무처장,尹 탄핵 선고 지연에 “신중 거듭하며 심리 중”
- ▲ 권성동 원내대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 ▲ 정부, ‘강진 피해’ 미얀마 네피도에 영사 파견… 생필품 지원 예정
- ▲ 여 “문형배·이미션 후임 문제, 민주당 태도 보고 결정”

- ▲ “尹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것”...응원 딱 돌린 김용현 전 장관
- ▲ 오세훈 서울시장, 신혼부부 주택 정책인 ‘미리 내집’ 현장 점검

/사진 뉴시스

#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추락… 버티컬 커머스 ‘위기감’

2023년부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 머스트잇·트렌비도 실적부진 겪어 “중소업체 무너질 신호탄” 우려 커 발란, 회생과 ‘M&A병행’ 방침 밝혀

한때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주목받았던 버티컬 커머스가 위기의 문턱에 섰다. 입점사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버티컬 커머스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입점사 여러분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란의 위기는 유동성 검색에서 비롯



발란 부티크 CI 이미지.

/발란

됐다. 실제 발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발란은 2023년 자본총계 -77억원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성장 한계에 부딪혀 반등에 실패한 발란은 지난 24일,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들며 플랫폼 입점사들에게 정산 대금 지연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28일 지급 일정 계획을 공지하

겠다고 밝혔으나, 사과문을 올리는 데 그쳤고 상품 구매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에 나섰다. 명확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발란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 사태가 버티컬 커머스 시장 위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버티컬 커머스는 2010년대 이커머스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 모델이다. 기존 종합형 판매 모델인 일반 이커머스와 달리, 특정 상품군에 집중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그렇던 버티컬 커머스가 소비 침체라는 거시적 위기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의류와 명품 등 소비재부터 소비를 줄이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발란과 함께 명품 버티컬 플랫폼 1세대로 불렸던 머스트잇과 트렌비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머스트잇은 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트렌비 역시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분의 1로 축소됐다. 이 외에도 가전·가구 플랫폼인 알렛츠와 디자인 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천삼백케이 등이 지난해 폐업하며 버티컬 사

업에서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은 중소 버티컬 업체들이 차례로 무너질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의 핵심은 신뢰인데, 티몬 사태에 이어 발란까지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면 플랫폼을 믿고 입점하려는 셀러가 있을 리 없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소비자 수요까지 줄어들면 플랫폼 업체들이 버티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 회생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인가되기 전,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발란이 인수합병이 되겠냐”, “발란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단계적 추경 처리” vs “규모 적고 부실”

〈興〉

〈野〉

### 10조 추경예산에 ‘이견’

국민의힘 “이견 없는 부분 먼저 처리 조기처리, 산불 이재민 실질적 혜택”

민주당 “이 정도로 민생회복 되겠나 ‘국회심사 생략하자’ 꿈수 더 가관”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추경 규모와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으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가 쟁점이 없는 사업만 편성에 민생 회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3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여

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통상대응, 재난 대응 세 가지 부분인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 처리되면 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아니라서 여야간 이견 없는 부분까지 문제 삼고 흡입을 내려하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라며 “이견 없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먼저 처리하고 우리당이 주장하는 부분,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계적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추진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

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을 행사해볼까 하는 꿈을 생각하나.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영남권 산불 피해를 지원할 재난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 대에 불과하고 전 부처에서 예산을 끌어모아도 1조원 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3조~4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사용해 예비비 증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글로벌사우스 시장 선제적 개척”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 우리기업 이익 보호 위해 지속 협의”

미국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시장 등 대체시장 발굴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1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14개 거점을 신설·강화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가전·디스플레이·이차전지·소재부품 등 수출업체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체시장 발굴 지원과 함께,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수출현장 지원단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수출업체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극복을 위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원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올해 성장률 0.7%p 내린 1.5% 예측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예정처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NABO(예정처) 경제전망 발간’ 보고서를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고, 추경 예산은 편성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망에 반

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약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며,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외부문에서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육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박태홍 기자

## 작년 법인파산 1940건… 10년래 최대

▶▶ 1면 ‘고금리·소비위축에…’서 계속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비은행권으로 밀리면서 상환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 법인파산건수 10년 내 가장 높아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건수는 1940건으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587건이던 법인파산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82% 증가한 뒤 지난해 2020년보다 81%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개인회생으로 하면서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9498건으로 1년전(12만1017건)과 비교해 8481건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불확실성에 짓눌린 일상... 글로벌 곳곳 '증시폭락' 신호 감지

美, 관세전쟁 본격화... 시장 패닉  
韓,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 지속  
“주식시장, 하락 꺾을 가능성 농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이라는 기술에 대해 엄청난 과대광고가 있었지만 어떤 기업도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지 못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인공지능(AI) 시장에 빚대어 한 말이다. AI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제2의 닷컴버블’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예견이 현실화하는 것일까. 인공지능(AI)관련주들이 맥없이 주저앉는 등 글로벌 증시 주변 곳곳에서 ‘폭락이 가깝다’라는 신호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침체(recession)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른 탓이다. 특히,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속명 아래 있는 국내 증시는 더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리아 피크 우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등 경제·정치를 아우르는 불확실성까지 시장을 짓누른다.

###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리세션물렛’ 아래

트럼프의 ‘리세션 물렛(침체를 건러시안 물렛)’이 시장에 ‘패닉(공포)’을 불러왔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나스닥은 2.70% 하락했다. 다우존스와 S&P도 1%대 추락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주는 4%대 하락했다. 태평양을 건너온 ‘공포’는 아시아 증시를 침몰시켰다. 31일 한국(-3.00%), 일본(-4.05%), 대만(-4.20%) 등 주요 아시아 증시는 3~4%대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 시장도 휘청였다. 트럼프가 겨는 ‘상호관

세’의 창끝이 예상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블랙먼데이’를 만들었다.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오는 2일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되므로 전 세계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관세는 조금 복잡한

다.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나 법률, 검역 등 각종 제도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처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 ◆갈라선 집안 끝에 경제주체들 ‘각자 도생’

나라 안으로도 악재들이 첩첩산중이다. 내리막길을 걷는 국가의 증시가 좋을 리 없다.

안갯속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 심판이 그중 하나다.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길어진 탄핵정국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와 국민의 소비 심리는 아직 한겨울이다. 김진욱 씨티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고 야당이 또다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결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정책 입안 효과도 약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4월 중순 이후 현재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도 원·달러 환율은 석 달간 145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지금 ‘피크 코리아’ 위기에 직면했다. 잘하던 분야는 죄다 중국 등에 추월당했고, 첨단 분야는 멀찍이 뒤처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에서 1.5%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에서 1.2%로,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1.8%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HSBC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HSBC는 지난 달 만해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달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내렸다.

HSBC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1~2월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점에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이 가파르게 둔화할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 여파로 제조업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의미 있는 회복이 어렵다고도 봤다. 또 소비자심리지수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하회해 소비 회복도 쉽지 않다고 봤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주식 시장이 깊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 주식시장도 재하락 여지가 짙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관세 우려에 원자재 비축 움직임... 가격상승 가속화

美, 올 들어 구리 가격 28% ‘경총’  
국제시세 격차 사상 최대 수준

미국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국제 시세와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구리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 25일 파운드당 5.183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가다. 이후 28일에는 5.112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만 28%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 기준 시세인 런던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약 4.44달러로 13%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WSJ은 “전례 없는 가격 격차”라며 “이는 관세 위협만으로 (미국) 국내 제조업체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된 자체만으로 미국 내 구리 비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WSJ은 “구리는 자동차부터 휴대전화까지 모든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전선과 파이프를 통해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쓰인다”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현대화, 재생 에너지 생산의 증가, 데이터센터 건설의 붐

로 인해 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구리 생산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글렌코어는 증가하는 구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매년 약 100만톤씩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미국 구리 값이 급등하면서 차익을 노린 구리 매매 움직임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프랏 자산운용의 ETF 상품 담당 스티브 쇼프스톤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됐을 수도 있는 구리가 차익 거래를 위해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미래 신성장 바이오·신약 중심도시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포항은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부터 생산 및 품질고도화에 걸친 전 주기를 특화하여, 바이오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향의 통합 혁신 포항

고시기능원 통합바이오도시

###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방사광가속기·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을 연구·지원하는 기관

### 바이오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거점으로, 의료수요가 큰 난치성 질환의 치료 대안으로 부상한 유전자·세포치료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연구소

### 3·4세대 방사광가속기

- 3세대 빛의 속도로 가속한 전자에서 나오는 방사광으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 4세대 3세대보다 1억배 밝고, 시간분해능력이 1천배 짧아 살아있는 세포활동을 실시간 분석 가능하여 전 세계에서 5기만 운영중



# 생산·소비·투자 ‘널뛰기’... 소매판매 급증에도 회복 ‘글썸’

## 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2월 전산업생산 2개월 만에 반등  
소매판매 11개월래 최대폭 증가  
설비투자 22년 만에 가장 큰 폭  
정부 “기저효과, 회복 판단 일러”

지난 2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소비가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내수부진 극복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이 3개 분야는 1월에 동반 감소한 바 있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2월 들어 나타났다. 이같이 부침을 거듭하는 탓에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6%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1.5%, 설비투자는 +18.7%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4.6%) 등에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 내 면세구역의 모습. /뉴시스

서 생산이 줄었지만 전자부품(9.1%)과 전기장비(6.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1.2% 감소했고, 제조업 출하는 내수(1.5%)와 수출(0.8%)에서 모두 증가하며 1.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

9%)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과 비교해 0.5%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5% 늘면서 지난해 3월

(+1.5%)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특히 내구재 판매 증가 폭은 2009년 9월(14.0%) 이후 1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7%)에서는 판매가 줄었다.

업체별로는 전문소매점(5.7%),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3%), 무점포소매(1.8%), 면세점(8.9%)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5.1%), 대형마트(-7.6%), 백화점(-4.9%), 편의점(-2.2%)에서는 판매가 감소했다.

투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서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3.3%) 및 운송장비(7.4%)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는 2003년 2월(19.4%) 이후 22년 사이 최대 증가 폭이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인 ‘건설기성’은 건축(-2.

2%)에서 실적이 줄었던 반면, 토목(+13.1%)에서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투자의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7.4%)와 건설수주(-6.9%)는 후퇴했다.

앞서 지난 1월 생산은 전월(12월)대비 -2.7%, 소매판매는 -0.6%, 투자는 -14.2%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리플 증가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최근 트리플 증감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며 “월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트리플 감소는 안 좋다, 트리플 증가가 좋다’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복 조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트리플 증가를 했다고 해서 회복에 굉장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4월이 되면 미국의 관세 부가가 어떤 형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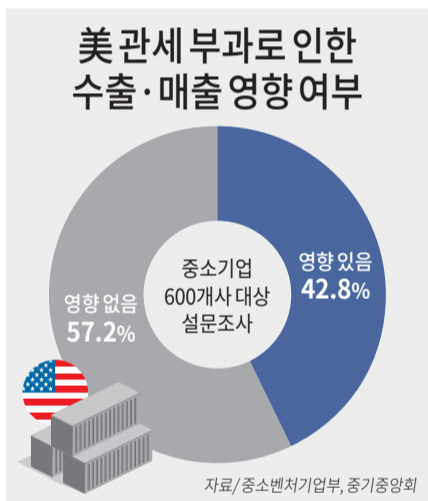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수출중소 10곳 중 4곳, 美 철강 등 관세에 ‘영향’

중기부·중기중앙회, 600개사 조사  
피해 영향 42.8%, 67.5% ‘대응 못 해’  
수출 예상 피해액 평균 182만 달러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피해액은 평균 18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응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2.8%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57.2%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규모별로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4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50%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피해 예상 규모는 평균 181만5000달러로 파악됐다.

예상 수출 피해 규모는 ‘10만~50만 달러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50만~150만 달러 미만’ (23.5%), ‘10만 달러 미만’ (17%) 순이었다.

예상하는 매출 피해 규모는 ▲5억~

15억원 미만(27.2%) ▲5억원 미만(26.6%) ▲15억~50억원 미만(23.4%) ▲100억원 이상(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67.5%는 관세 부과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32.5%의 기업(복수응답)은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 (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 (30.8%)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필요한 관세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

(51.3%)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물류비용 지원 강화’ (46.7%), ‘정책자금 지원’ (40.5%) 등을 주로 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철강·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43.4%가 ‘수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으로는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전국 15개 지역별 애로신고 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견기업, 2분기도 ‘경기 나빠진다’... 내수 전망 ‘최악’

중견기업, 2분기 경기전망 결과 80.7 기록, 1년전비 11.6p 하락  
수출보다 내수 침체 더 걱정  
“정부, 국회 등 지혜 모아야”

중견기업들이 1분기보다 2분기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출보다 내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1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전망 지수는 80.7을 기록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0.4포인트(p)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1.6p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전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기타 제조업이 유일하게 ‘100’을 기록해 기준선에 걸쳤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100’을 밑도는 등 2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제조업 가운데 1차금속·금속가공업종(61.7→66.3)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식·음료품(83.5→64.1), 자동차·트레일러(84.7→76.8) 등이 전분기 대비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전 업종의 전망이 어두웠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운수업종(89.2→78.0)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동산(70.9→63.7), 출판·통신·정보서비스(83.1→78.8) 업종도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들은 올 2분기 수출은 소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수는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식·음료업종의 전망은 밝았다.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전망 지수는 97.2을 기록하는 등 전분기 대

비 3.1p 상승했다. 다만, 여전히 100을 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전망권을 벗어 나지 못했다.

제조업 수출은 전분기 대비 7.9p 오른 99.6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음료품업종이 전분기 대비 28.8p 오른 124.2로 나타나는 등 수출이 좋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1차금속(99.5→22.7p) 업종도 상승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들은 경영 애로 1순위로 ▲내수부진(59.1%) ▲인건비 상승(40.9%) ▲업체간 과당 경쟁(35.5%) ▲원자재 가격 상승(30.4%) ▲환율 변동(27.0%) 등을 꼽았다.

이호준 중견기업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출과 내수 전방의 활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정부와 국회 등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가상자산 위축... 비트코인 8만달러 ‘턱걸이’

관세 전쟁·인플레이 ‘이중고’

가상자산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확산에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늦어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11만 달러를 목전에 뒀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8만달러 전후까지 내려앉았다.

31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1BTC당 약 8만1400달러(1억195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1.96%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1월 22일 기록했던 연중 최고가인 10만6136달러 대비로는 약 23%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폭은 더 컸다. 가상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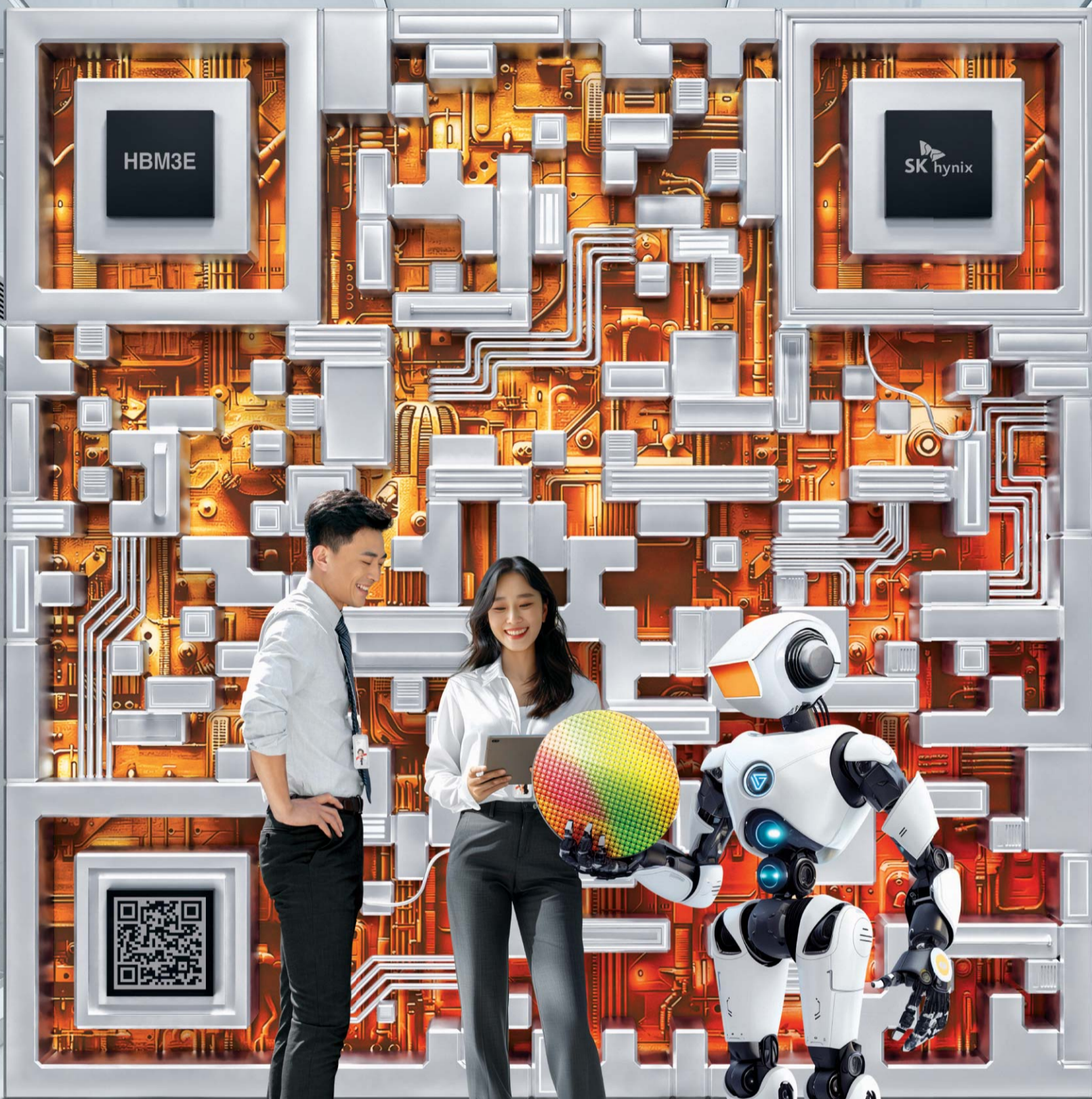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연중 최고가 대비 약 51.1% 하락했고, 시총 3위인 리플(XRP)도 36.4% 하락했다. 대표적인 밈 코인인 ‘도지코인(DOGE)’과 ‘오피셜트럼프(TRUMP)’의 낙폭은 각각 59.6%, 86%에 달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멕시코·캐나다·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다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의약품·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논의 중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마은혁 임명 놓고 與野 신경전… 韓-崔 쌍탄핵 가능성까지

민주당 “오늘 미임명 시 중대 결심”  
한덕수에 면담 요청했지만 거부

국민의힘 “마 후보자, 합의 안 돼”  
조국혁신당 “韓·최상목 탄핵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고 ‘재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국회에 ‘쌍탄핵’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보았으나, 3월말까지 선고가 나지 않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당력을 쏟는 상황이다. 야당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현재 재판관이 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후보자가 아니라며 임명에 강력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반대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월 31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후기 자들과 만나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당의 결론이 있었다”며 “특히, 마 후보자는 국회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판단은 편

향된 이념을 가진 분을 헌법을 해석하는 현재 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와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으나, 서로 거친 인사를 쏟아내며 감정의 골만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의 결정을 취사선택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에 대한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결정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어쩌면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마 후보자에게 집착하나. 마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마 후보자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며 북한에 따라서 혁명 운운했던 사람”이라고 폄했다.

이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동당 당원에 대해 공소기가 관정을 내린 이념에 경도된 진영 논리에 충실한 판사”라며 “이런 판사를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현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 시

한을 하루 남긴 오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4~6선 국회의원 22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면담 거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형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교한 한덕수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현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정당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자체에선 전체적인 전략이나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이미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내일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 마지노선은 ‘이달 11일’

현재 권위 의문 여론 높아져  
與野 모두 ‘빠른 선고’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길은 이번주 선고 여부에 쏠려 있다. 지난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각종 낭설이 떠도는 가운데,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11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지 108일째가 됐다.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 걸린 박근

해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보름 이상 더 걸리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17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11차례의 변론을 가지며 선고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달 넘게 평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현재는 오전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현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다’, ‘모 재판관이 진행을 늦추고 있다’ 등 온갖 낭설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도 선고를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

는 현재의 권위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18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4월18일에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이고, 이 경우 헌법재판관은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든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사실상 6인 체제로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인으로는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하다.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재판

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그렇기에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한 상황이 오랜기간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인지 이제는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번주 현재에 예정된 일정은

없다. 월요일(24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선고, 목요일(27일) 정치 선고가 있던 지난주와는 다르다. 수요일인 4월 2일에는 선고기일이 통지돼야 금요일인 4월4일 선고가 가능하다. 만일 4월2일까지 선고일자가 안 나오면 이번주 역시 탄핵심판의 결론을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번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후의 마지노선은 4월 11일 선고다. 문형배·이미션 재판관이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퇴임하는 주에 중대한 사건을 선고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월 9일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으면 정국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예진 기자 syj@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팩스센터를 방문해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덕수 “몰려오는 도전 극복… 오늘 경제안보전략TF 발족”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2위와의 격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격려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안보전략TF(테스크포스)를 내일 발족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5일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해 개편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발(發) 관세전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수출 1위 효과 산업인 반도체가 거의 1400억 달러 이상”이라며 “도전은 밀려왔지만 기술력, 또 일하는 생산직들과의 좋은 노사관계 등을 발휘해 정부와 같이 협력해 온 세계에 불어닥친 쓰나미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도전에 정부와 기업이 국민과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

“부결 시 자본시장법 개정할 것”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총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

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휘말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례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보험청구권 신탁 첫발... 과도한 규제에 시작부터 반쪽논란

사망보험 신탁 제도 미비 지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에  
수익자 범위도 가족 다양성 배제  
보험계약대출시 무효도 도마위



‘보험청구권신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청구권 신탁 한계 이미지.

시 신탁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본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

은 앞서 1930년대부터 상속설계 목적으로 생명보험신탁이 활성화됐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보험법 개정 후 생명보험사가 보험청구권의 신탁을 인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가 앞다퉈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일 당일 하나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은 각각 보험청구권 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고 교보생명은 신탁 출시 2주 만에 100건(140억원)을 돌파해 초기 반응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사망보험금 규모는 약 82조원에 달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신탁시장으로 유입될 잠재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전신탁 및 재산신탁의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31조

7078억원 및 743조9230억원임을 고려할 때 보험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국내 신탁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종합재산신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도입 취지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청구권 신탁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규는 보험청구권 신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선 신탁할 수 있는 보험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된다. 재해·질병사망 등 불확실성이 높은 특약이나 보험금액이 적은 상품은 제외된다. 소규모 보험계약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자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만 국한되면서 사실상 동거가

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신탁계약 무효’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보험청구권이 대출로 인해 소멸하거나 감소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했다.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유족 보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탁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타당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대출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신탁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유족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위탁자의 자금조달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 7개월 만에 반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2월 전국 매매 거래 32.3% ↑  
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최대치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 작년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 활발했다.

반면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년여 만에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늘었다. 특히 서울이 7320건으로 전월 대비 37.9% 늘어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작년 7월 1만3000건 안팎을 기록한 이후 9월 8000건, 12월 6000건에 이어 올해 1월에는 5000건에 불과했다.

서울아파트 매매는 지난달 4743건으로 전년 대비 46.7% 급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600가구, 지방 5만2467가구로 각각 10.9%, 0.8% 감소했다. 전체 미분양은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방의 비중이 81%에 달했다.

올해 들어 분양이 급감한데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 대비 27.6%, 전년 동기 대비 79.4% 감소했다. 특히 2월 수도권 분양은 전무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2503호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고, 수도권 인허가는 7003호로 전월 대비 53.7% 줄었다.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새 50억 달러 감소

원·달러 환율급등에 환전 증가  
기업 예금 중심 달러화 예금 ↓

지난달 우리나라 외화예금이 한 달새 50억 달러가량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치솟자, 기업들이 수익 결재 대금을 인출하고, 개인은 보유한 달러화를 내다판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3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9억1000만 달러 줄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합한 것이다. 통화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달러화 예금 잔액은 84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37억9000만 달러가 줄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려는 이들이 증가했다”며 특히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달러화 예금이 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1452.7원에서 2월 말 1463.4원으로 10.7원 뛰었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달러화 대비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화예금이 줄었다. /뉴시스

엔화예금도 원·엔 환율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이들이 늘었다. 2월 기준 엔화잔액은 77억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원·엔(100엔) 환율은 1월 말 939.0엔에서 2월 말 975.4엔으로 36.4엔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38억7000만 달러 줄어든 84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10억4000만 달러 감소한 13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예금(846억2000만 달러)은 45억8000만 달러, 개인예금(139억1000만 달러)이 3억3000만 달러 줄었다.

/내외리 기자 yul115@

### 빗썸

## 법인회원 가입 개시

빗썸은 지난 28일부터 법인 회원 가입 신청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 빗썸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법인을 직접 찾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법인 회원 가입 서비스는 단순한 가입 절차를 넘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원 가입 신청 시 전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관련 제도 안내 등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법인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건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자 효율성, 그리고 파트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라며 “빗썸은 단기 거래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적 자산 운용 파트너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WOORI 가족봉사단’ 단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 ‘2025 가족봉사단’ 발대식

직원·직원가족 자발적인 참여  
‘희망 & 마음상자’ 만들기 진행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과 직원 가족 등 100여 명이 함께한 2025년 ‘WOORI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WOORI 가족봉사단’은 우리은행과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직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올해 첫 번째 봉사활동으로 ‘희망상자 & 마음상자 만들기’를 진행했다.

‘희망상자’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더 나은 입원 생활을 위한 담요, 텀블러, 비니 등 물품들로 구성됐다. 이날 제작한 희망상자는 우리은행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공동 후원하는 ‘소아암어린이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에게 지원된다.

‘마음상자’는 감사일기장, 피크닉 매트 등 위기가정의 관계개선을 위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연임 성공’

저축은행중앙회 정기총회서  
찬성 76표, 반대 3표로 선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앞으로 3년간 저축은행중앙회를 이끌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회관 16층 벅커스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선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기총회에는 각 회원사 대표 79명이 모두 참석했다. 오 회장은 찬성 76표, 반대 3표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했다.

업계에서는 중앙회장의 금융 경험과



업권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권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책임자라는 분위기가 나온다. 같은날 중앙회 전무이사과 감사에는 각각 김인구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오 회장은 “저축은행권에 현안이 많아 어깨가 무겁지만 소통을 강화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노력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유 지분 절반 증여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승계 무관… 글로벌 사업 위한 선택”

그룹 경영권 승계 논란 정면돌파 “지분증여로 본연의 사업에 집중 기업가치 관련 오해 바로 잡힐 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유중이던 (주)한화 지분(22.65%)의 절반을 31일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한화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화는 그룹 전반을 지배하는 지주 회사격으로 김 회장이 그룹 승계와 관련한 그간의 논란과 오해를 차단하려고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한화그룹은 이날 “김승연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증여를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행한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한화그룹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시급한 글로벌 투자 실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화에어로페이스는 올해 주가가 130% 상승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대규모 증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승계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주주들의 의구심이 제기됐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10년 후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이라는 한화에어로페이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속하게 해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상증자 역시 이를 위한 필수적 활동이며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장기적으로 약 1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유상증자로 3조 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 4000억원은 향후 영업 현금흐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7.3%(1조3000억원)을 인수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양사가 방산·조선·해양 육해공 패키지 영업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화가 지난 2022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676.5%에 달했다. 20여년간 국책금융기관에서 1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큰 빛을 해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화는 인수 후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지분율 30.44%를 확보한 것은 한화오션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것이 한화측 주장이다. 글로벌 해양방산 시장을 공략 중인

한화오션은 주요 고객인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모회사의 신용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육상 위주 포트폴리오에 지배력이 강화된 해양방산 자회사의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를 얻게 됐다. 통합 방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화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모-자회사 간 지배력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완료로 (주)한화와 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주)한화의 기업 가치를 낮추려 한다는 오해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로봇용 배터리 시장 급팽창… K-기업, ‘원통형’ 승부수

중 기업들 관련 시장 본격 진출 韓, 원통형 배터리 기술 고도화 “성능 최적화 등 차별화 전략 필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로봇 배터리 시장의 급팽창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개발을 넘어 로봇 완제품 생산까지 주도하고 있어 경쟁력 측면에서 격차를 좁히는 데 도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에 이어 중국 EVE에너지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며 로봇 산업계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분야의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만큼 해당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

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금융지주회사 모건스탠리는 EVE에너지, 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단 4개 기업만을 이 분야의 핵심 업체로 선정할 바 있다.

CATL은 산업용 로봇을 직접 만들어 제조현장에 투입하는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국 상하이에 산업용 로봇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로봇팀을 구성했다. 수십명 규모의 로봇팀은 현재 로봇이 환경을 이해하는 개념 체계인 온톨로지와 제어 기술, 인간과 컴퓨터간 상호작용 알고리즘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VE에너지 또한 ‘지상-저고도-휴머노이드’ 영역을 아우르는 배터리 영역 구축을 진행 중이다.

국내 배터리사들도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SDI는 현대차·기아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배터리 형태를 최적

화하는 동시에 출력과 사용 시간을 늘린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4년 11월 자율주행 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2170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과 달리 중국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를 탑재한 로봇 완제품 생산까지 주도하고 있어,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로봇에 탑재될 배터리 형태가 원통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원통형 배터리의 강점을 내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통형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열관리,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듈화와 실장 자유도가 높아 로봇의 구조적 설계와도 잘 맞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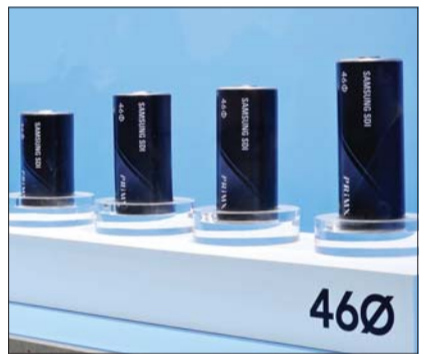
평가가 따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적용한 고품질 NCMA 양극재를 사용하고 고유 특허 기술인 세라믹이 코팅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삼성SDI는 46파이 배터리를 ‘4680, 4695, 46100, 46120’ 등 4개 제품으로, 지름은 46mm로 모두 같고 높이는 각각 80mm, 95mm, 100mm, 120mm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 배터리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로봇에 최적화된 고성능 배터리와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등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SDI가 지난 3월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에서 공개한 46파이 배터리 라인업.

/삼성SDI

### 삼성SDI ‘46파이’ 배터리 양산

삼성SDI가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는 46파이(지름 46mm) 배터리의 양산에 돌입했다.

삼성SDI는 최근 베트남 법인에서 4695(지름 4mm·높이 9mm) 배터리 모듈 출하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4695 배터리 셀은 천안사업장 마더라인에서 생산되며, 이를 베트남 법인에서 모듈로 조립한 후 마이크로모빌리티용(소형 이동수단)으로 미국의 고객사에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 삼성SDI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양산에 성공했다.

삼성SDI의 46파이 배터리는 고용량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와 독자 특허 소재인 SCN(실리코탄소복합체) 음극재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수명을 늘렸으며 안전성도 확보했다. 또한 전극 끝부분을 여러 개의 탭으로 만들어 전류의 경로를 확장시키는 ‘탭리스(Tabless) 기술’을 적용해 내부 저항을 약 90% 가량 낮추고 출력을 높였다.

삼성SDI는 주요 전기차 고객들과 활발하게 46파이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추후 전기차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 장인화 회장 “미래소재 중심 신사업 적극 추진”

포스코그룹 창립 57주년

장 회장, 위기극복·지속가능성 강조 “유망 사업 진입, 한시도 미룰 수 없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철강뿐만 아니라 미래 소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인화 회장은 31일 제57주년 포스코그룹 창립기념일(4월 1일)을 앞두고 글로벌 신사업을 통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장 회장은 기념사에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핵심사업의 시장 확장과 그룹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유망 사업 진입은 한시도 미룰 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도록 생산성과 품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을 개발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임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7대 미래혁신 과제 등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장 회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도와 미국 등 철강 고성장, 고수의 지역에서의 현지

/이승용 기자 lsy2665@

# “전기차 폐배터리서 화재위험 없이 희귀금속 뽑아낸다”

대한상의-산자부, 샌드박스 심의위 알디솔루션 등 57건 실증특례 승인 건식제련·액화수소 등 신기술 실증 규제 미비로 막힌 기술 사업화 첫발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화재위험 없이 회수하는 신기술이 샌드박스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4건을 포함해 총 57건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실증'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국내 벤처의 세계 최초 신기술(폐배터리 재활용 수직가열로 건식제련 기술)이 샌드박스로 빛을 본 것이다.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기차 폐배터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의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 넣고 중저온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건식제련 신기술은 전처리 과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강산 등을 사

용하지 않아 폐수·폐산 발생도 없어 친환경적이다. 금속 회수 기간도 습식제련 기술은 수일이 소요되지만 건식제련 신기술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령상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준은 기존 습식제련 기술에만 맞춰져 있었고 건식제련 신기술은 재활용 기준이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배터리, 철강 등 연관 소재 산업의 원료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생산된 원료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성 관리를 위해 수유처 제한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알디솔루션'은 충남 천안 소재 공장 부지에 수직형 전기가열로 설비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리튬산업'의 '액화수소 생산, 저장, 충전 시스템 구축·운영 및 탱크·용기 성능 실증'도 실증특례로 길을 열었다. 수소액화기로 생산하거나 탱크 로리로 운송한 액화수소를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이를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 용기에 충전해 액화수소 설비·용기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작아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는 액화수소 제조·저장·충전 시설의 기술·설비 기준과 액화수소 용기의 제조·검사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외에도 심의위원회는 폐그물을 해안가 바지선에서 수거·분리·세척 후 고품질 원료로 재사용하는 '수거 바지선 활용 폐그물 재활용 시스템'(스몰액션,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다수 미용사가 1개 영업장에 입주해 설비·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비치나켓 등 2개사), 반려동물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리프사운드 등 19개사) 등도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최병민, 5년 만에 복귀... 구원투수 될까

깨끗한나라, 반등 동력 주목 최병민 회장, 사내이사로 선임 최근 2년간 적자 속 실적개선 의지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이 5년 만에 이사회에 복귀했다. 2019년 실적개선을 위해 장녀 최현수 대표에게 대표직을 물려줬지만 지난해까지 실적 악화가 지속되자 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 회장의 일선 복귀가 기업의 '깨끗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최병민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2020년 등기임원직을 내려놓은 뒤 5년 만의 경영 복귀다.

최 회장은 1952년생으로 최화식 창업주의 차남이다. 1980년부터 대표이사로 경영일선에 있다가 2019년 장녀인 최현수 대표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이어



최현수 대표



이동열 대표

2020년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장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뒤 깨끗한나라의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 520억원에서 2021년 130억원, 2022년 37억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 18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9억원의 영업손실로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최근 2년간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적은 아쉽다는 전망이다.

이에 이번 최 회장은 경영 복귀를 통해 깨끗한나라의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 회장의 가족 경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너들의 경영 복귀는 실적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경영 실적이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오너가 직접 일선에 나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책임경영 강화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사업은 오너 선택이 결정적인 만큼 향후 의사 결정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총수 경영 복귀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 “올해 AI 인재양성·업무혁신 추진”

SK하이닉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준비

SK하이닉스가 올해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나선다.

이승만 SK하이닉스 SKMS&Growth 부사장은 31일 사내 뉴스룸 인터뷰에서 "AI 혁신을 이끄는 회사인 만큼 AI 인재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AI 전문가 양성·사용 체계 확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7년간 SK그룹에서 인재 육성과 SK그룹의 경영 철학인 SK 경영관리체계(SKMS) 확산을 담당한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다. 2022년 SK하이닉스에 합류해 'SKMS&Growth' 조직을 이끌며 구성원의 성장과 역량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구성원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유연하고 강한 팀 빌딩, 기술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글로벌 리더십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대학 학제 체계를 갖춘 '사내 교육 플랫폼(SKHU·SK hynix University)'을 통해 AI 및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SKHU는 현재 81개 직무, 254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학습 성과에 따라 '전문역량 배지'를 부여해 동기 부여와 성취도를 높인다.

이 부사장은 "SKHU는 전문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이라며 "구성원이 적극 활용하면 만족할 만한 성장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다운턴(하락기) 극복은 구성원들의 노력과 SKMS 철학이 녹아 있는 SK하이닉스 DNA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기자 hyem@

## ‘하이브리드의 진화’... F1 DNA 품고, 성능·효율 다 잡았다

르노코리아

쿠페형 SUV 아르카나 2026 출시

르노코리아가 업그레이드된 2026년형 '르노 아르카나(Arkana)'를 새롭게 선보인다.

쿠페형 SUV 르노 아르카나는 파워트레인을 'E-Tech 하이브리드'와 '1.6GTe' 두 가지로 구성하고 각 트림별 사양을 최적화했다. 또한 최상위 트림 '에스프리 알핀'을 추가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했다.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는 르노그룹 F1 머신의 하이브리드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개발됐다. 전기 모터 2단과 엔진 변속 4단의 조합을 사용하는 클



2026년형 르노 아르카나.

/르노코리아

러치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듀얼 모터 시스템 및 1.6가솔린 엔진과 결합돼 부드럽고 빠른 변속과 높은 에너지 효율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까지 균형

있게 제공한다.

운행 환경에 따라 직렬, 병렬,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모드를 모두 활용하면서 도심 구간에서 뛰어난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공인 연비는 17인치 기준으로 도심 17.5km/l, 고속도로 17.3km/l로 복합연비 17.4km/l이다. 18인치 타이어의 경우 도심 17.4km/l, 고속도로 16.6km/l로 복합 17.0km/l이다. 실연비는 공인 연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년형 아르카나 E-Tech 하이브리드는 '에스프리 알핀(esprit Alpin)'이 최상위 신규 트림으로 추가됐다.

/이승용 기자

## SK케미칼, 코팅·페인트 분야 공략 본격화

‘유러피안 코팅 쇼 2025’ 참가

SK케미칼이 코팅·페인트 분야 전시회 최초로 참가하며 소재 별 마케팅을 강화한다.

SK케미칼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개최된 '유러피안 코팅 쇼(ECS) 2025'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ECS는 코팅 및 페인트 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대 전시회로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소재 및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안료, 첨가제, 접착제 및 원료, 건축 화학 중간체 등을 전시하는 자리다.

SK케미칼은 유럽 내 코팅 및 페인트

분야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가능 소재인 스카이본, 스카이씨에이치디엠, 에코트리온 등을 전시했다.

SK케미칼의 코팅 소재 대표 품목은 스카이본이다. 스카이본은 환경호르몬인 BPA를 포함하지 않는 접착, 코팅제용 폴리우레탄 수지다.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접촉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캔 코팅 분야에서 에폭시를 대체할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코폴리에스터의 핵심 원료 물질인 스카이씨에이치디엠 또한 함께 전시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 AI 에이전트, 비서 이상의 존재?... 명령반응 수준에 머물러

네이버·카카오 등 연내 출시 목표  
기존 AI 비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의도 파악·맥락 이해 단계부터 '한계'  
일반 소비자 활용까지 시간 필요

IT 업계가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를 차세대 기술로 띄우고 있지만, 정작 일반 이용자에게 이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비서 그 이상의 존재'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가능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우려와 함께, 연이어 출시되는 제품들이 과연 충분한 기술적 차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회의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개인 이용자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AI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미지.

위한 AI 에이전트 개발에 착수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능동형 시스템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기존 AI 비서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6일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연내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개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설명하는 AI 에이전트의 기능 대부분이 실상은 기존 AI 비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일정 관리, 예약 제한 등 능동적인 기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기술적 기반은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게 업

계의 시각이다.

2022년 공개된 SK텔레콤의 AI 에이전트 '에이닷(adot.ai)'은 12종의 생성형 AI 모델을 탑재했지만, 기본 작동 방식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다. 예컨대 이용자가 다음 날 일정을 묻더라도 정보가 부족할 경우 장소를 추천하거나 예약을 대신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제안을 받기 위해선 여전히 세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한계가 남는다.

올해 출시 예정인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카나나(Kanana)' 역시 별도 플랫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지만, 기술적 완성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하다.

AI 에이전트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의 발화를 맥락에 따라 정밀하게 해석하는 언어 이해 능력,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작업 실행력, 그리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 문제가 꼽힌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모레 미국에 갈

준비를 해줘"라고 말했다면, AI 에이전트는 여권 유효 여부 확인→일정 점검→항공권 검색 및 예약→숙소 추천→예산 고려한 옵션 제안→결제까지의 흐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 여기에 출발지, 선호 항공사, 여행 목적 등의 개인 맥락까지 반영돼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이러한 작업 흐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도 파악'과 '맥락 이해' 단계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낸다. 사용자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나 전후 관계를 해석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적절한 기능을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는 '지능형 비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라고 하지만, 실상은 AI 비서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용(B2B) 환경과 달리, 일반 소비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는 본격적인 활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T "AICT 기업으로 완전한 변화 달성할 것" 배달의민족, '올해 외식업 트렌드' 발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 제43기 정기 주주총회

"AX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도약  
올해 AX 사업 본격적인 도약점 될 것"

KT가 '인공지능(AI) 전환' 가속 페달을 밟으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선언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에 앞서 박효일 전락실장은 AI 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성장, B2C AI 서비스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 2024년 경영전략을 소개했다.

정우진 사업컨설팅부장은 "KT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



KT 김영섭 대표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KT

비스를 제공하는 'AX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며,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점이자 KT의 기업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2023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의결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6조4312억원, 영업이익은 8095억원이었다. 4분기 배당금은 주당 500원으로 결정됐으며,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

KT는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당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는 과우영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김용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재선임됐다. 감사위원회에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현 이사가 선임됐다. /김서현 기자

### '빙과류·국밥·저속노화' 선정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5 외식업트렌드 Vol.1'을 발표하고 올해 식품·외식업계의 화두로 '시즌리스 아이스', '뉴웨이브 국밥', '저속노화'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외식업트렌드는 배민과 국내 외식전문가들이 함께 뽑은 유행 키워드를 선보이는 콘텐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식업 동향을 분석해 가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시즌리스 아이스는 계절을 잊은 빙과류로, 추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이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인기를 끄는 소비트렌드가 포착됐다고 배민은 설명했다.

국밥에도 새 바람이 일었다. 이색적인 식재료를 얹은 국밥을 세련된 고급 식기에 담아내고, 가게 인테리어도 감각적으로 꾸민 국밥집들이 등장한 것. 이러한 '뉴웨이브'가 외식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MZ(198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소비자들의 감성을 공략했다고 배민은 설명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저속노화 열풍도 빼놓을 수 없는 외식업 트렌드다. 저속노화와 관련한 키워드를 배민 앱에서 메뉴명으로 활용 중인 가게가 지난 4년간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도시락 카테고리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김현정 기자 hik1@



◀ 이색적인 식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안암'의 돼지국밥. /배달의민족

## 과기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전국 355개 구역 정비작업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355개 구역에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전주 15만여 본 대상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하거나 지중화하는 작업이다. 도로나 건물 외벽에 거미줄처럼 얽힌 케이블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정비계획에서는 한전주 11만

2653본, 통신주 4만1020본을 포함해 총 15만3673본이 대상이다. 특히 도심의 과밀한 전기통신설비와 위해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크레인 차량이 통신주를 들어받아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위해설비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를 파지 않고 통신관로를 묻을 수 있는 '지향성압입(HDD) 공법'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 뤼튼, 830억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

누적 투자유치액 약 1300억 달해

토종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뫼튼이 800억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AI 서비스 스타트업 뫼튼테크놀로지스는 83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50억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B 투자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인 굿워터캐피탈이 주도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BRV캐피탈 매니지먼트, 캡스톤파트너스, 우리벤처파트너스, 수이제네리스파트너스, 앤틀러, Z벤처캐피탈(ZVC) 등이 참여

했다.

이번 투자로 뫼튼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하게 됐다. 국내 AI 스타트업 가운데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는 최초로 누적 투자 1000억원을 넘겼다.

뤼튼은 실사용자 기반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500만명을 돌파했다. 서비스 개시 1년 10개월 만의 기록으로, 토스(3년 3개월), 당근마켓(2년)보다 빠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출 역시 캐리커 챗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10억원, 12월 20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서현 기자

# 코스피 ‘활발’, 코스닥 ‘주춤’... 자사주 소각 양극화 심화

올해 코스피 자사주 소각공시 66건  
소각금액 12조, 전년비 3배 급증  
코스닥, 소각액 2084억→2031억

“주주환원, 여유자금 확보에 진행  
수익성·성장성 높이는게 효과적”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최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입 후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R&D), 공장건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드는 중소 벤처기업 특성상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활동에 나서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밸류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 ◆자사주 소각 ‘양극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3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가 66건으로 전년(28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각 금액 역시 4조1801억원에서 12조14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는 33건으로 전년 동기(22건)보다 늘었으나, 금액은 2031억원으로 오히려 전년(2084억원)보다 감소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자본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밸류업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코스닥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스퀘어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유현금이 적고 최근 수익성까지 낮아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1153곳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7조8777억원, 4조3075억원으로 각각 6%, 29% 넘게 감소했다.

코스닥 기업의 더딘 밸류업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늘었다.

영국의 기업 지배구조 리서치 업체 딜리전트마켓인텔리전스가 최근 발간한 ‘2025 주주 행동주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 수가 66개로 미국, 일본에 이어 셋째로 많았다.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셋째였다.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이후, 소액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소각 강요보다는 ‘생산적 투자’ 활성화해야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 환원은 기업이 여유 자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지만 많은 코스닥 기업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주주 환원보다는 경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야 주주 환원이 가능하며, 현재 코스닥 기업이 주주 환원에 미온적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신규 투자에 사용할 여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과 성장 투자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 환원 확대나 투자 계획 공시는 기업 가치 평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산적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며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자본 지출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미국發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5만전자’로

트럼프세션에 美 기술주 ‘버블’ 경고  
삼성전자, 3.99% 하락 5만7800원  
“삼성, 장기적으로 실적개선 기대”

반도체 가격 회복 전망으로 살아나던 ‘K-반도체’ 앞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세션(트럼프와 친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 공포에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데다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버블’ 경고등까지 켜졌다. 여기에 공매도 재개까지 하락을 부채질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99% 하락한 5만78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 4.32% 내린 19만7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주 약세는 지난주 말(28일) 미국 소비 심리 악화와 지출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등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뉴욕 증시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구성 종목 30개가 모두 주저앉

으며 2.95% 급락했다.

공매도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삼성전자의 대차 잔고는 7400만주, 4조5441억원 규모에 달한다.

개미들은 고민이다. 미국 기술주들이 추락하면서 반도체주 주가가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 있어서다.

1분기 두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은 엇갈린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2조88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6조5022억원으로 125.3%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6조6060억원에서 5조1918억원으로 21.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가 전망은 장밋빛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D램, 낸드 공급이 수요 회복 속도를 크게 밀들며 긴급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는 행 모건스탠리도 삼성

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 측은 “반도체 산업이 바닥을 쳤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은 이미 침체 이후의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도 호평이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장 평균을 웃도는 99%의 고대역폭메모리(HBM)비트 그로스(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율)가 예상된다면서, 회사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연내 꾸준한 상승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7% 올린 32만원으로 제시했다. 투자 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채민숙 연구원은 “올해 HBM 비트 그로스는 컨벤셔널 D램 성장 대비 5배 이상 높고, ASP(평균판매가격) 역시 4배 이상 높다”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상반기 내 HBM3e 12Hi 제품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HBM 시장 지배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현대오일터미널 신동화 대표이사, 교보생명 박정범 본부장, 한국산업은행 김태희 본부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 우리자산운용 최승재 대표이사. /우리자산운용

### 1300억 ‘친환경 선박연료 1호’ 펀드 설정

우리자산운용, 해수부 등과 협력

우리자산운용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과 협력해 ‘우리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1호(이하 친환경 선박연료 1호)’ 펀드를 설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금융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선박연료 1호’는 총 1300억원 규모로, 울산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LNG 및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해운 정책에 맞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펀드가 해운·항만·물류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친환경 해운정책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 ‘亞 데이터센터’ 투자 큰 손 받길 몰린다

작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래 145조  
아시아 수요 연평균 24% 성장 전망  
금리 인하기, 인프라 시장에 ‘긍정적’

“향후 투자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생태계에 있다. 가장 짝꿍한 투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에서 나올 것이다”(조지프 지들 블랙스톤 최고 투자 전략가)

‘전력 잡아먹는 하마’로 통하는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AI)시장 확산으로 큰 손들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래액은 100억달러(약 145조원)를 웃돌았다. 최대 규모다. 인프라시장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달이 증가하면서 저조했던 아시아 관련 투자도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관련 달은 약 80개로 직전 해인 2023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아시아의 인프라펀드 평균 사이즈는 약 15억달러(약 2조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PEF)들은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며 확장하는 추세”라며 “특히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에 달이 집중되면서 성장기를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저비용 AI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데이터센터의 필요 용량이 203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 생성량도 2년 전 대비 1.5배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인프라 투자가 주목되는 이유다. 디지털리얼티는 아시아 데이터센터 수요의 2024~2028년 연평균 성장률(CAGR)을 24%로 전망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 자금유입 1위

디딤펀드 출시 6개월, 1200억 모여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가 디딤펀드 출시 이후 6개월 동안 자금유입 1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동시에 출시한 디딤펀드는 6개월 만에 1200억원이 자금이 모이며 순항 중이다.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출시 이후 443억원의 순증을 보이며, 전체 디딤펀드 중 37%비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전체 디딤펀드 중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신한디딤글로벌EMP펀드’는 연초 이후 2.20% 기록하며 업계 디딤펀드 평균 수익률 대비 91bp 초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설정 이후 수익률 역시 7.21%로 디딤펀드 평균 2.67%p를 상회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 ‘국세 61조’... 전년대비 3조 증가 소득세 2.7조·법인세 7000억 ↑

## 기재부, ‘2월 국세수입 현황’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세수실적 ‘속도’는 30조 원 넘는 규모의 세수입 부족을 기록한 지난해 1~2월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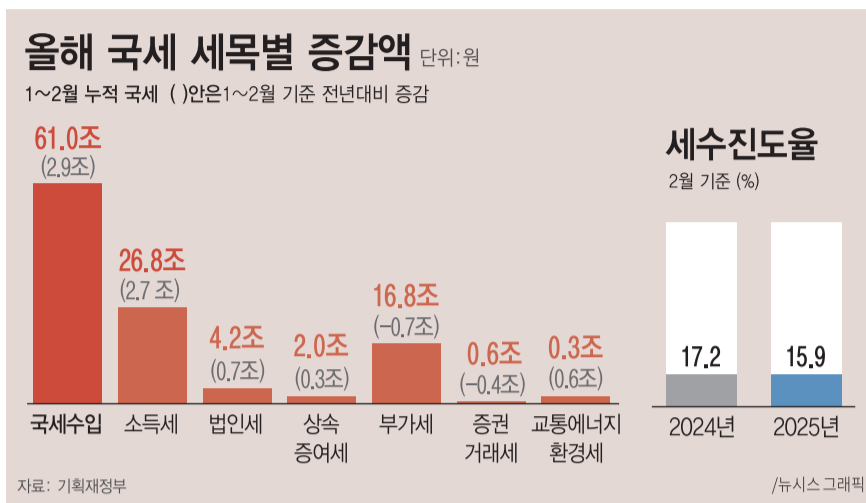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수입은 14조3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2조1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18.6%) 증가했다.

소득세 세수입은 13조2000억 원으로 2조 원(18.2%)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상승에 따른 근로·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증여세(1조2000억 원)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3000억 원)는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3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 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000억 원 늘었고 관세(5000억 원)도 1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58조 원) 대비 2조9000억 원(5.1%) 늘었다.



## 성과급·주택거래로 소득세 늘고 법인세 실적개선에 증가세 유지

## 1~2월 세수 진도율은 15.9% 작년보다 낮아 결손 우려 여전 예산 늘었지만 세수 속도 둔화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세(26조8000억 원)는 2조7000억 원, 법인세(4조2000억 원)는 7000억 원, 교통세(2조1000억 원)는 3000억 원, 상속증여세(2조 원)는 3000억 원씩 세수가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16조8000억 원)는 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는 4000억 원 세수 실적이 감소했다.

한편, 전체 국세 수입 예산에서 현재

까지 걸린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올해 2월 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17.2%)과 최근 5년 평균(16.8%)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이는 1년 전보다 세금이 더 걸렸더라도 세입 예산이 증가한 만큼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2024년 367조3000억 원 수준이던 국세수입 예산은 2025년에는 382조4000억 원으로 4.1% 늘었다.

이에 따라 재작성년과 작년 등 2년째 이어진 ‘세수 결손’이 올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 세수 실적만으로 올해 세수 전체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자 5년새 2.6배 ↑

산업인력공단, 1분기 ‘자격Q’ 발간

국가기술자격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인원이 5년 전보다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기사’ 필시기험에도 최근 5년 내 최다 인원이 응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격Q에는 정보관리6개 종목, 사무자동화2개 종목, 콘텐츠제작1개 종목 분야 종목별 기초정보와 응시 및 취득 통계, 수험자 통계, 진로 및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정보기술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5년(2020~2024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했다. 특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종목은 연평균 26.4% 증가하며, 정보기술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개인 콘텐츠 제작·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을 다룬 자격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6만6169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 응시인원을 기록했다. 정보처리기사의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 증가율은 11.2%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정보기술 분야 9개 종목 필기시험응시자 65.6%는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64.5%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은 취업자(임금근로자) 37.9%, 학생 33.4%, 구직자(취업준비생 등) 21.1% 순이었다. 응시목적은 취업 39.4%, 자기개발 26.6%, 업무수행 능력향상 13.2% 순이다.

관련 종목별 상세 내용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정보기술 분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정보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 안전경영대상 첫 시상

인천병원·진해어린이집 등 3곳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제1회 안전경영대상’을 시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경영대상은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경영 실천 노력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공단 이용 고객과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정해 올해 첫 시상했다.

첫 수상기관으로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등 4개 분야의 위험성 평가 충실도 등 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우수한 공단직영 인천병원, 진해어린이집, 제주지사가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울러 올해 5월 1일부터는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

경영본부’를 신설해 안전보건 활동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내·외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따로 없으므로 안전경영대상도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시상했다”며 “창립 30주년을 맞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안전 점검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공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재할전문 직영병원과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129개소 소속기관에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다.

특히, 6000여명의 환자가 매일 11곳의 공단 병원을 이용 중이며,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는 33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

## 산업부, 보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무단 M&A 원상회복·과태료 부과 7월 22일 시행... 손해 최대 5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정부 승인 없이 인수·합병하면 조사 절차없이 산업부장관이 즉시 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 ~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년 2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우리 주력 산업분야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이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법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

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위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권력 과 송 배,

채정완 초대전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Chaejungwan

2025.4.3 Thu\_4.13 Sun Gallery 

주최 Gallery  후원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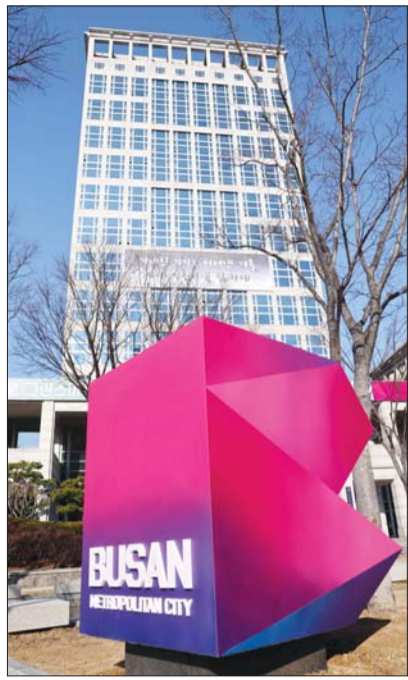
# 부산시, 유망 금융기술 기업 키운다... 195억 예산 투입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4대 과제·10개 세부 사업 구성  
사업화·공간·인건비 종합지원

부산시는 지역의 유망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핀테크 산업 육성 계획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부산' 실현을 목표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기술(핀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확장(스케일업)을 이루며 해당 기업에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화와 공간, 인건비 등 3종 종합 지원과 함께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 고도화 강화로 약 19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유망기업 확장(스케일업) 및 투자생태계 강화 ▲부산 특화



부산시청.

금융기술(핀테크) 신사업 발굴 추진 ▲ 금융기술(핀테크) 허브 운영 고도화 ▲ 금융기술 협치(거버넌스) 혁신 등 4대 과제 1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부산시는 '유망기업 확장(스케일업) 및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해 확장(스케일업)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5년 동안 20여곳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 더욱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정착을 위한 육성 공간을 조성한다.

또 BNK금융지주 등 선도기업과 금융기술(핀테크) 허브 신생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으로 기업 자문(컨설팅), 창업 기획(엑셀러레이팅) 등을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스 풀'과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난 2월 시-한국거래소-부산상공회의소간에 체결한 혁신성장 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성장제도 설명회, 맞춤형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이끈다.

'부산 특화 금융기술(핀테크) 신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시는 지역 특화 금융기술(핀테크) 신규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술(핀테크) 허브 운영 고도화'를 위해 시는 성과 기반의 금융기술(핀테크) 전문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을 핵심 지표(매출, 투자, 고용) 위주로 더욱 고도화하고, 기업 투자기반 성장 도약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또 '금융기술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등 금융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최, 국내 최대 금융기술(핀테크) 행사인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6' 부산 유치, 찾아가는 금융기술(핀테크) 지원단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건의하며 정부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양군

#### 고향사랑기부제 긴급모금 실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을 거쳐 영양으로 확산함에 따라, 영양군은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양군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긴급모금'을 시행하였으며 모여진 기금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 및 산불 피해 복구에 기금 사용할 예정이다. 모금 목표액은 20억원이며, 모금 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해남군

#### 영덕군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해남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해남군은 30일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담요, 천막 등 185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차량을 이용해 영덕복지재단으로 전달했다.

또한 해남 옥천농협에서도 옥천농협 OK라이스센터 생산한 땅콩햇살 즉석밥 4800개 물량을 긴급히 확보하고, 생수 500개 등을 더해 총 54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련해 지원에 동참했다.

물품 전달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군수, 이성욱 군의회의장 등이 함께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북교육청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비 지원

경북교육청이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4700여 명에게 치료지원비 96억3000여만원을 지원한다.

3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치료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7만원, 연 최대 204만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고 수준이다.

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심리 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 훈련, 보행훈련 등이며 학생들은 이 중 가장 적합한 1개 영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상주시

#### '상주농업기계박람회' 성료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1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28일 상주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 상주농업기계박람회에 1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농기계와 최신 농업로봇기술을 선보였다. 박람회장은 240개 업체에서 400개의 기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시는 3만7228건의 상담과 약 80억원 이상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주(경북)=김준한 기자

## 대구시, 지자체 최초 'AI상담' 운영

차량등록·노후자동차·여권 분야  
9월까지 AI상담시스템 시범운영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단체 최초로 콜센터에 AI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담 분야는 차량등록, 노후자동차, 여권 등 3개 분야이다.

120달구별콜센터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용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은 4월부터 9월까지로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되며 1단계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단계는 평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시범운영 기간 AI상담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오류 수정,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시

범운영 종료 후에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한 AI상담시스템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주변 소음 등으로 AI가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담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시민들은 120달구별콜센터 이용 시 AI상담, 상담원, 보이는ARS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달구별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AI상담 이용 방법 등 콜센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07년부터 120달구별콜센터를 운영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AI상담시스템 도입은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전망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울산시, 시민 위한 공간으로 시청사 재단장

시청 본관 1층 로비 개방

울산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를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단장하는 사업을 완공하고 4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본관 건립 후 로비 내에 여러 사무실을 배치해 사용해 왔으나 답답한 분위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재단장 사업에 착공해 도서관, 전시관, 만남의 장소 등을 설치하고 시청사 1층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됐다.

로비 공간에는 8000여 권의 책을 비치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휴식하며 책을 볼 수 있는 열린 도서관과 일본, 중국 등 국제교류도시에서 받은 각종 기념품을 전시하는 국제교류전시관이 들어섰다.

로비서쪽에는 시금고인BNK울산경남은행과 NH농협이 1별관에서 이



울산시는 시청 본관 1층 로비 재단장 사업을 완공하고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전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센터와 어려운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마련했다.

또 민원 안내창구와 청원 경찰실을 확장해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내창구 옆 벽면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홍보와 울산 관광지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 포항시, AI·디지털분야 스타트업 지원

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역혁신 모델  
공모 최종선정... 국비 100억 확보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체인지업 그라운드 지역혁신 모델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AI·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거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엑셀러레이터 성공 사례 중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확산모델을 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그간 포항시와 경북도가 포스코힐딩스와 함께 사업을 준비해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은 ▲AI스타



AI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 'SPARK' 조감도.

트업 인큐베이팅센터 'SPARK' 구축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포스코 벤처플랫폼 연계 고성장 집중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포항경제자유구역 내에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50개 사업규모의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부산해수청, '기관장 행정협의회' 진행

부산시-부산항만공사와 개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1일 오후 2시 부산해수청에서 '부산청·부산시·BPA 기관장 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부산해수청을 비롯해 부산 해양과 항만을 대표하는 3개 기관이 '부산항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부산항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을 비롯해 김광희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3개 기관 기관장들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3개 기관장 행정협의회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8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데, 현재 북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과 국제 물류환경 변화 등 안팎으로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 지역 업계 기대도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항 재개발부터 부산 북항 화물차 주차장 조성, 2025 부산항 축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등 각 기관에서 제출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 회의 결과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 그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진격의 'K-만두'... 韓·아시아 넘어 글로벌 입맛 잡는다

K-푸드 열풍에 '만두' 관심 높아져 EU 만두 수출 897만 달러 15% ↑

**CJ제일제당** 작년 해외매출 5.6조 내년 헝가리, 내후년 미국 공장 가동 **풀무원** 글루텐 프리 '이슬만두' **오뚜기** 'X.O. 만두' 소비자 호응



호주의 한 울워스(Woolworths) 매장에서 소비자가 비비고 만두를 구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식물성지구식단 이슬만두. /풀무원

한국 만두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K-푸드 열풍과 한류 확산에 힘입어 김치, 불고기, 떡볶이와 함께 만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주류 식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기업들은 각 시장의 소비자 취향에 맞춘 현지화 전략과 차별화한 제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만두 수출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수출액이 5089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6361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6075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6652만 달러로 다시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간편

식 수요 증가와 한국 음식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두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유럽 시장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과 영국으로의 만두 수출액은 897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2010년대 후반부터 '비비고 만두'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략에 나섰다.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만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비비고 만두는 2020년에 글로벌 매출 1조 원 돌파, 2022년 기준 미국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와 월마트, 트레이더조 등 주류 유통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전까지 해외에서 '만두'는 일본의 '교자(gyoza)'와 혼동되기도 했지만,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를 'Korean Dumpling'으로 명확히 브랜딩함으로써 고유성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해외식품사업 매출은 5조5814억원을 차지했다. 그리고 글로벌전략제품 중 만두는 18%의 비중을 차지한다.

만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CJ제일제당 외에도 풀무원, 롯데웰푸드, 오뚜기 등 여러 국내 식품 기업들의 활약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만두 시장 성장세에 따라 각 기업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냉동만두와 간편식을 확대하며, 국내에서 인기몰이를 끈 '통새우만두'와 같은 메가 히트 제품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수풀스에 건설 중인 '북미 아시안 푸드 신공장'과, 2026년 가동 예정인 헝가리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풀무원은 식물성만두로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풀무원의 식물성 지방 식품 브랜드 '풀무원지구식단'의 대표 제품 '이슬만두'는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았다.

이슬만두 2종(부추새송이·적화불고기맛)은 밀가루 대신 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들어진 만두피에 식물성 원료만으로 속을 채운 식물성 만두 제품이다.

글루텐 프리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된 시장으로 이슬만두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슬만두의 수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는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제품군인 'X.O. 만두' 시리즈를 출시하며 고급 원재료와 차별화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현지화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만두를 포함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만큼 차별화한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삼삼한 데이' 맞아 급식장 저염식단 선포

CJ프레시웨이, 전국 40곳 급식장 소금·뉘장 등 염분 조미료 최소화



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장 그린테라에서 식사하는 고객. /CJ프레시웨이

CJ프레시웨이가 3월 31일 '삼삼한 데이'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잡고 오피스, 산업체, 병원 등 전국 40여 개 단체급식장에서 저염 식단을 선보였다. '삼삼한 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한 음식을 먹는 날로 식약처가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저염 식단은 식약처가 발간한 건강 요리책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에 수록된 메뉴로 구성됐다. 대표 메뉴로는 닭고기 볶음밥, 버섯 순두부 찌개, 토마토 오리볶음, 비트 무절임 등이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저염식 조리 노하우를 활용해 나트륨을 줄이고, 식재료 고유의 맛과 풍미를 살린 메뉴를 선보였다. 소금·뉘장·고추장 등 염분류 조미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강황·마늘·양파가루 등 향신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토마토·비트·바나나 등 나트륨 배

출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도 활용했다. 급식장 내부에는 홍보물을 게시해 저염식의 중요성과 레시피를 소개하고, 식사 인증 SNS 이벤트도 진행했다.

CJ프레시웨이는 병원 환자식, 치료식 등 급식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식을 꾸준히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저칼로리 저염 레시피' 서적을 출간했으며, 2018년에는 식약처 주관 '저염 급식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식단 '슬로잇(SlowEat)' ▲슈퍼곡물을 활용한 건강 간편식 '슈퍼그로틴' ▲맞춤형 영양 관리 프로그램 '힐링 밸런스' 등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급식 서비스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신원선 기자

## '켈리·라마다 호텔' 협업... 야구팬 공략

하이트진로, 라마다 신도림 호텔 야구장 분위기 '켈리브랜드 룸' 꾸며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Kelly)'가 이색 협업을 통해 야구 팬 공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야구 팬을 위해 켈리와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이하 라마다 신도림 호텔)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라마다 신도림 호텔 일부 객실을 야구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켈리 브랜드 룸'으로 꾸민다.

야구 팬들은 물론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켈리 브랜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라마다 신도림 호텔은 고척스카이돔 인근에 위치하여 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한 전국 야구 팬들이 즐겨 찾는 호텔로 알려져 있고, 숙박객 및 웨딩 고객 등 매주 약 1만 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하이트진로는 라마다 신도림 호텔 12층 객실 5개와 객실 로비를 야구 콘셉트 테마 켈리 브랜딩 룸으로 재단장한다. 해당 객실과 로비는 켈리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인 엠버 컬러를 활용하여 꾸며지고, 야구 경기의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소품들이 배치된다.

또한 켈리 브랜딩 룸은 켈리 캔맥주(500ml) 4캔 제공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숙박객들이 켈리와 함께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 日 '빔스' 한국 상륙... 롯데百貨, 팝업 오픈

4일~8일 잠실 예비뉴얼서

롯데백화점이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잠실 예비뉴얼 지하 1층에서 '빔스'의 국내 첫 공식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빔스는 1976년 도쿄 하라주쿠에서 시작된 일본 대표 편집숍이자 패션 브랜드로, 전 세계에 약 17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총 다섯 가지 빔스 제품군을 선보인다. 남성 라인 '빔스', 남성 패

션을 재해석한 여성 라인 '빔스 보이', 감각적인 여성 라인 '레이 빔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인테리어 소품과 '뉴에라' 등 인기 브랜드와의 컬래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빔스 보이 데님 키홀더', '빔스 보이 로고 쇼퍼백' 등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대표 상품도 준비했다.

단독 상품도 마련했다. 한글과 영문으로 '빔스 보이 서울'이 프린팅된 '빔스 보이 티셔츠'와 '빔스 보이 토트백'이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BGF리테일, 14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4월 14일까지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고, 사전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직군은 ▲영업관리(SC) ▲상품 운영 ▲IT ▲점포 시설이며,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다.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다.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입사 희망자는 BGF리테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안재선 기자

## 맥심 모카골드 스틱, 신규 디자인 적용

동서식품, 2종에 친환경 리뉴얼

동서식품이 주요 커피믹스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의 스틱에 신규 디자인을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된 디자인은 스틱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잉크와 유기용제 양을 대폭 줄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맥심 모카골드는 기존보다 한층 밝은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스틱 곳곳에 있던 금색의 디자인 요소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잉크와 유기용제의 사용

량을 각각 연간 9.8t씩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맥심 슈프림골드는 기존의 무광 포장재 대신 유광 포장재를 적용해 잉크 사용량은 연간 6.5t, 유기용제 사용량은 연간 3.2t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서식품은 2021년 6월에 맥심 커피믹스 대규격 제품에 종이 손잡이를 적용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커피믹스, 인스턴트 커피 리필, 포스트 시리얼 스탠드백 등 자사 제품군에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적용해 잉크 사용량과 잔류 용제를 줄이는 등 친환경 패키지 도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 HLB, 항암제 기반 빅파마 도전... “리보세라닙 성공 자신”

정기 주총 개최... 미래전략 공유  
리보세라닙 등 신약개발 주력  
진양곤 대표 “유동화 자산 충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가 주주들과 ‘리보세라닙’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공유하며 소통 강화에 나섰다.

진양곤 HLB 대표는 31일 주주총회 직후 진행된 주주간담회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닙과 캠펠리주맙 병용요법’ 관련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리보세라닙과 캠펠리주맙 병용요법은 지난 3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2차 서류보완 요구서한(CRL)’을 수령해 간암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HLB는 세 번째 도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미국 FDA에 ‘리보세라닙과 캠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7월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심사가 클래스 1으로



진양곤 HLB 대표가 3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주주간담회에서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HLB.

분류되는 경우다. 클래스 1은 2개월, 클래스 2는 6개월이 소요된다. 미국 FDA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화학·생산·품질(CMC) 현장에 가서 보완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에 따라 클래스 1, 클래스 2 등을 구분한다.

이번 2차 CRL에서 미국 FDA는 중국 항서제약이 캠펠리주맙 CMC 지적 사항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리보세라닙은 캠펠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신약이므로 캠펠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미국 FDA는 결정을 보류한다.

이와 관련 HLB와 항서제약의 파트너십에 대한 주주들의 의혹은 지속 제기돼 왔다. 1차, 2차 CRL 모두 항서제약 캠펠리주맙 CMC 문제인 것에 대해 HLB가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양곤 대표는 “HLB와 항서제약의 파트너십은 발전하고 있다”며 “아무리 파트너라고 해도 각자

의 내부 시설이나 기술에 대한 보안 문제라서 서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제한적인 데 비해 항서제약은 올해 1월 CMC 실사 직후 지적 사항을 공유했고 이달 둘째 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미국 FDA의 포스트 액션 레터(PAL)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양곤 대표는 또 후속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며 리보세라닙의 품목허가 승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재차 내비쳤다.

그는 “간암, 담관암, 선낭암 등을 치료하는 각각의 3가지 항암제가 HLB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현재 HLB가 직면한 미국 품목허가 승인 불발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된 방안이 아니라 당초 유기적으로 설계된 대형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리보세라닙과 캠펠리주맙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게 되면, 후속 신약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선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적응증을 확장한 암종 불문 항암제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오는 2030년 다양한 항암제를

보유한 빅파마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HLB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등 바이오 사업을 펼쳐 왔지만, 매출 구조는 복합소재 사업, 제외진단 의료기기 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HLB는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696억원, 영업손실 1188억원, 당기순손실 900억원 등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늘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적자를 지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전환사채 만기 도래 등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진양곤 대표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언제든지 유동화 가능한 자산,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상업화 및 신약 발매 과정에서는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외부 투자를 확보하는 등 성장기반을 마련해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중에는 2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 대표는 “리보세라닙을 통해 성공 사례를 쓰고 HLB만의 도전 정신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신제품

## CJ올리브영, ‘슬로우에이징’ 힘 준다... 한 달간 특가·팝업

(저속 노화)

모공, 안색, 잡티 등 영역 확장  
“중소·인디 K뷰티 브랜드 육성”

CJ올리브영이 ‘슬로우 에이징(저속 노화)’ 부문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슬로우에이징은 항노화와 차별화된 뷰티 분야로 나이 들을 받아들이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은 핵심 고객층인 20~30대 소비자들도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움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올리브영은 정통 항노화 영역인 주름, 탄력부터 모공, 안색, 잡티, 흔적



CJ올리브영 슬로우에이징 제품 이미지

등까지 슬로우에이징 영역을 폭넓게 설정한다.

실제로 올리브영은 지난 2023년부터 ‘슬로우 에이징’을 새로운 스킨케어 부문으로 주력해 관련 브랜드와 상품을 발굴해 왔다. 올리브영에서 판매

하는 슬로우에이징 상품 수는 2023년 약 1만6500개에서 2024년 2만2000여 개로, 1년 새 30% 가량 늘었다. 매출 측면에서는 2024년에만 슬로우에이징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리브영은 한 달간 슬로우에이징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고 다양한 샘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잡티 흔적, 모공, 탄력을 관리하기 위한 마스크팩을 비롯해 에센스, 크림,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예방을 위한 선풍제 상품 등을 슬로우에이징 기능성 상품으로 선정해 특가에 선보

인다.

모든 제품을 6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29종의 체험분이 담긴 ‘슬로우에이징 키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는 트렌드파트 바이 올리브영 홍대에서 ‘슬로우 드라이트’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향후 슬로우에이징을 이너뷰티 영역까지 확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뷰티 카테고리 발굴하고 관련 시장의 유망한 중소·인디 K뷰티 브랜드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 일리운 ‘헬로키티’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은 더마 브랜드 일리운에서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와 협업한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민감 보습 랜드에 여행 온 헬로키티’를 주제로 꾸며졌다.

일리운 대표 제품 ‘세라마이드 아토티션’, ‘세라마이드 아토티션 토탈케어’, ‘프레쉬 모이스춰 스크럽워시’ 등이 각 기획세트에 선보여진다.

오는 6일까지 헬로키티 한정판 기획세트를 포함해 일리운 제품 4만원 이상 결제 완료 및 구매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헬로키티 피크닉 폴딩박스’를 선착순 증정한다.

일리운 헬로키티 한정판 기획세트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창하 기자

## 셀트리온, ‘옵리클로’ 자동주사제 제형 추가 JW중외제약 “헴리브라, 환자 삶의 질 개선”

EMA 약품사용자문위원회 승인권고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품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옵리클로’ 자동주사제 제형 추가에 대한 변경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옵리클로는 지난해 5월 유럽에서 쥘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승인받아 ‘파스트 무버’ 지위까지 확보했다. 옵리클로적응증은 천식, 만성 비부비염, 식품알레르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이다.

이번 승인권고에 따라 셀트리온은 옵리클로 제품군을 75mg/150mg 사전충전형주사제 제형에서 75mg/150mg 자동주사제 제형으로 확장하게 됐다. 향후 환자들이 스스로 주사를 투여할 수

있게 되면서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자가주사제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셀트리온은 옵리클로 제형 변경이 유럽 내 시장 확대 및 점유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존 허가받은 제형과 새로운 제형 두 가지 옵션을 통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처방 경쟁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성과는 옵리클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유럽 6개국에서 619명의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옵리클로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동등성, 안전성 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창하 기자

투약 후 일상·여가 생활 중 출혈 감소

JW중외제약은 지난달 5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럽혈우병협회 연례총회(EAHAD 2025)’에서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헴리브라’를 투약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연구결과다. 해당 연구는 스웨덴 룬드대학교 중개외과학과 안 아스테르마크 교수 연구팀이 주도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24주 이상 8인자 제제를 사용해 예방요법을 받아 온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총 28명(성인 16명,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48주간 헴리브라를 투약했다. 이후 삶의 질과 출혈 빈

화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헴리브라 투약 후에도 신체 활동 수준과 관절 건강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출혈 발생은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및 여가 활동 중 출혈에 대한 걱정이나 불편함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성인은 55.7%, 청소년은 33.4% 수준으로 치료가 편해졌다고 응답했다.

관절 건강 측면에서는 관절 손상은 새로 생기지 않았고, 환자들의 관절 상태 전반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됐다.

출혈 억제 효과도 나타났다. 다양한 신체 활동 중 치료가 필요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수는 기존 8인자 제제 사용 시 11명이었으나, 헴리브라 전환 후에는 21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창하 기자

## 조아제약

### ‘조은아이부름시럽’ 출시

조아제약이 어린이 의약품 브랜드 ‘조은아이’에서 짜 먹는 어린이 멀미약 ‘조은아이부름시럽’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은아이부름시럽은 일반의약품으로 멀미,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을 예방하고 완화해 준다. 항히스타민제인 디멘하이드리네이트와 비타민 B6의 한 종류인 피리독신염산염 등으로 처방됐다.

만 3세 이상 어린이부터 복용 가능하며 막대형 제품으로 설계돼 섭취와 휴대가 간편하다. 승차 또는 승선 30분 전 복용(1일 3회 한도)하고,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 1회 복용량을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면 된다. /이창하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 METABUILD





**신한은행-한전기술,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한국전력기술과 '퇴직연금 담보 설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전력기술 임직원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에 담보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강대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오른쪽)이 조진구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중기중앙회, '2025 WKBC' 홍보대사에 정준호 위촉**

중기중앙회는 배우 정준호씨를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KBC)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며, 한국 우수 중소기업 400여개사가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회장(왼쪽)과 배우 정준호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현대트랜시스, 장애청소년에 전동휠체어 전달**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달 27일 경기 화성시 동탄아름뫼복지관에서 관내 장애청소년에게 맞춤형 전동휠체어를 전달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뒷줄 가운데), 이광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상임대표 등 전달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현대모비스, 인천 미호강 일대 생태계 보호활동**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충북 진천 미호강 일대에서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추진한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현대모비스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200여명이 함께 했다. /현대모비스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자녀 63명에 장학금 전달**

이디야커피는 지난 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5 캠퍼스 희망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전국 가맹점주 자녀 63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1억2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이사과 장학금 수혜 점주, 자녀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산불피해 복구 지원**

**LG전자, 가전수리 등 일상회복 총력**

19개 대피소에 공기청정기 설치 피해현장 '이동서비스센터' 운영

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31일 LG전자에 따르면, 피해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관계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임시 대피소에 필요한 가전을 파악하고, 피해 제품 수리 접수 채널을 신속히 마련했다.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주요 19개 대피소에 공기청정기와 전자레인지 설치해 대피소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간편식 조리도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전자

또한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산불로 손상된 가전제품의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용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제공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시작했다.

LG전자는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산불 피해 지원 성금 20

억원을 지난 26일 기탁했다. LG 생활건강과 LG유플러스도 생필품 지원과 통신 서비스 제공 등이 재민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LG 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도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 3社, 5억 기탁... "지역사회 긴밀히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SK플라즈마·SK가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SK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 지역민 돕기에 나섰다.

SK디스커버리는 최근 발생한 안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산하 관계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SK가스가 기부

금 총 5억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됐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및 주거 환경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동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플라즈마의 공장들이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으로 회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이번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SK디스커버리와 산하 관계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isy2665@

**한미약품그룹, 구호물품 3만개 지원**

한미약품그룹이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3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한미약품그룹은 경남 산청군, 경북 영덕군·영양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안전두우 국산콩 검은콩 고칼

슌' 2만 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 캔 등 총 3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화재 진압과 복구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도 전달된다.



산불피해 구호물품.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범 KCC家, 성금 3.5억 기부**

범 KCC 계열인 KCC, KCC글라스, KCC실리콘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억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31일 개별 기업들에 따르면 KC가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각각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환

경 복구 등 실질적인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KCC는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몽진 회장이, KCC글라스는 차남인 정몽익 회장이 각각 이끌고 있다. KCC실리콘은 KCC 자회사인 모네타피르포먼스머티리얼스코리아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코리아, 1억 기부**

현대코리아가 최근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코리아는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했으며, 산불 피해 현장 복구 및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생필품 지원, 일상 회복 지원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건국대 박상희 총동문회장 당선**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건국대학교는 박상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사진)이 지난 27일 열린 '제39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3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총동문회를 이끌게 된다.

박 회장은 1979년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홍익대 세무대학원 경영학 석사, 숙명여대 남성 최초 명예행정학 박사, 숭실대 명예경영학 박사, 건국대 명예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박 회장은 "총동문회장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 동문들의 참여를 높여 법·학교·동문회 모든 건국인이 화합하는 동문회, 30만 동문이 하나가 되는 위대한 동문회를 만들어가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르노코리아 송상명 본부장 선임**



르노코리아가 송상명 신임 구매 본부장(사진)을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상명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0년 부산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하고 GM대우 등을 거쳐 2003년 르노코리아에 합류했다.

송 본부장은 35년 이상 자동차 개발 엔지니어로 경력을 쌓아 왔으며, QM6 및 부산공장에서 생산했던 닛산 로그의 개발 총괄 엔지니어를 역임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가나와현의 닛산 연구소에서 르노 측 담당자로서 CMF-CD3 플랫폼 개발에도 참여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송 본부장은 차량 및 플랫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르노코리아의 신차 개발 및 생산에 있어 다양한 협력사들의 기술 협력과 지원을 잘 이끌어 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인사**

- ◆코스닥협회 ◇승진 △김준만(사업지원본부 본부장 및 연구정책본부 본부장 겸직)
- ◆동국제약 ◇동국제약 임원승진 △헬스케어사업본부 이근영 사장대우 △헬스케어뷰티사업부본 함명진 부사장
- ◆우리자산운용 ◇전무 승진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최돈관

**부음**

▲성용환씨 별세, 성재혁(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팀장)씨 부친상 = 30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일, 02-3779-1526.

# 지능과 윤리



**진성오** 소장  
신비한 심리사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매우 지적인 인물이다. 전도유망한 대학생이고, 세상의 구조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위대한 인물’은 일반적인 도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노파를 살해한다.

그의 생각엔, 한 명의 무가치한 그리고 약한 생명을 없애고 많은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정당한 ‘계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점점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 시달린다. 이성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감정과 도덕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는 길을 택한다.

윤리적으로 볼 때, 라스콜니코프는 지능이 뛰어나지만 어찌면 ‘윤리적 공감’이 결여된 인물이다. 그가 옳고 그름을 머리로만 판단했고, 타인의 고통을 ‘숫자’처럼 계산했다고 볼 수 있다.

지능(intelligence)은 보통 문제 해결 능

력, 추론, 암기력, 언어 능력 같은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반면 윤리(ethics)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더 능하다고 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며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똑똑한 머리가 반드시 바른 선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윤리적인 판단에도 높은 사고 능력은 필요하다.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는 공감 능력,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통찰력,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는 논리성 등은 전부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즉, 윤리란 윤리적 의사 선택일 수 있다. 도덕률처럼 상황 별로 정해진 답이 없는, 즉 답을 찾아가는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윤리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오늘날 AI가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똑똑함이 인간다운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해치거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다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 지능을 개척한 천재 중 한 명이 튜링이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 설 수 있는지 혹은 인간 지능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한 방식이 튜링 테스트이다. 즉, 어떠한 인간적인 단서 없이 대화-보통 글이다-만으로 상대가 로봇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대상을 인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다소 기능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AI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통과한 AI가 인간인지 여부보다 인간 중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아이러니를 느낀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기계적인 작업 뿐만이 아니라 AI에게 인간이 윤리를 배우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하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 오늘의 운세

4월 1일 (음 3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대가 너무 높아 만족도가 낮다. **48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진다. **60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발전이 더디다. **72년생** 여럿의 견해가 다들 옳지만 의견 통일일. **84년생** 가리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지출.



**37년생** 발등을 찍는 건 도끼 맞지 아니라 내 탓. **4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식구들을 잘 챙기자. **61년생** 풍요가 기대된다. **73년생**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처럼 꾸준히 저축을. **85년생** 비대해진 자이는 자신을 위해 애쓰려나.



**38년생** 주변을 확고히 해야 인연도 이어진다. **50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힘들다. **62년생** 요행수를 바라지말자. **74년생** 덕을 베푸는데 스승이 따로 있겠는가. **8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 간다.



**39년생** 인생이 아저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51년생** 마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63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75년생**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아 현재 고독한 것. **87년생** 십 년간 모아 둔 비상금이 적절하게 쓰인다.



**40년생**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말아야 결과가 무난하다. **52년생** 불을 보듯 뻔한 거짓말에 조심하자. **64년생** 기사화이다. **76년생**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는 격은 아닌지. **88년생** 하나를 뿌리고 두 개를 얻는 날이다.



**4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라. **53년생** 머리만 민다가는 일을 그려친다. **65년생** 달빛이 비치는 것을 훔쳐 삼아 공부. **77년생** 욕심을 내서 주시주자는 빚만 지고 어려워진다. **89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길어 열린다.



**42년생** 직원을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4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66년생**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약속을 어기지 마라. **78년생** 직장에서 실력 없는 요령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90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



**43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약화시킨다. **55년생** 주변에서 고마움의 선물도 들어온다. **67년생** 낭중지추라 했으니 분발하라. **79년생**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91년생** 이간질은 행복을 깨뜨리는 사건이 되니.



**44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56년생** 일시적인 얌은씨는 멀리하도록. **68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에서 인기. **80년생** 고양이에게 방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진. **92년생** 나이를 떠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45년생** 옛 연인을 꿈에도 그리워 잊기가 어렵다. **57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69년생** 재주 기술이 다양하다. **81년생** 분기하니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 **93년생** 삶의 공존을 해안만 영위가 되니.



**46년생** 미련해 보이나 신용이 우선. **58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출 것. **70년생** 실패하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도록. **82년생** 흘러간 강물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했다. **94년생** 남이 보기에는 요행수로 성공한 것 같으나 진정으로 노력을 했다.



**47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간직하여 진행하자. **59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자. **71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날. **8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95년생** 괴로움과 고초를 겪은 다음 수준에 도달되면 결과를 얻는다.

# 한국의 ‘스페이스’를 지킬 방법은



**이지수첩**  
이혜민 (산업부)

“스페이스가 흐르는 곳에서 권력이 탄생한다.” 영화 ‘듀: 파트 2’에서 나오는 이 명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귀중한 자원 ‘스페이스 램판지’의 가치를 상징한다. 아라키스 행성의 모래 사막에서만 채굴되는 스페이스는 우주항해를 가능케 하고 초인적 능력을 부여한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스페이스’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기술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있다. 영화 속 여러 세력이 스페이스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은 오늘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닮아 있다.

영화에서 황제와 하코넨 가문이 스페이

스를 독점하려 한 것처럼,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약 520억달러의 보조금과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칩 법’으로 430억유로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점유율을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경쟁 우위를 지키고, 중국은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고액 연봉과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인재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노동계와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도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다. 야당은 대기업 중심 지원책이라며 중소기업 배려를 요구하고, 여당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산업계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근무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라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최근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나, 정작 핵심 조항인 연구개발직 근무시간 유연화 조항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전이 없었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영화에서 폴 아트레이디스는 “두려움은 정신을 죽이는 작은 죽음”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정치 이익을 넘어선 과감한 결단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주도권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승자독식 시장이다. 미래 위에 세운 성은 쉽게 무너진다. 정쟁 속에 흔들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지킬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

/hyem@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 부자에게 배워라



복 중에서 제일가는 복은 재물복이다. 재물이 없으면 사는 게 힘겹다.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의 하나로 꼽는 게 노년 빈곤이다. 그런데 빈곤은 나이와 관계없이 좋지 않다. 돈 없이 빈한하게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힘든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재물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자 되기 유행이 번지는 건 사는 게 힘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공부 필요하다. 부자 되는 공부는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배움을 얻어야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장사의 신으로 불렸던 상인 집단이 있다. 바로 개성상인이다. 개성상인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개성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했는데 당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까지 장악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다. 그들은 인삼과 홍삼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복식부기를 활용했으며 금융 제도까지 구축하면서 개성상인이라는 상징적인 용어가 지만들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도전이다. 개성상인은 고려의 사대부 계층과 지식인 출신이 많았다. 조선왕조가 고려의 사대부들을 내쳤을 때 공부만 하던 이들은 당장 먹고살 길이 없었다. 그러자 밭을 잡던 손으로 기술을 익히고 장사를 시작했다.

생전 해보지 않았던 힘든 일에 도전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일궜다. 두 번째는 차별화다. 기술을 익히면 같은 업종의 상인보다 월등한 실력이 되도록 연마했다. 개성상인이 만드는 가죽신은 권문세가에서 미리 돈을 가져다주면서 주문을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 세 번째는 기본에 속하는 절약이다. 절약하는 것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약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7			4					6
		4	1	3	9	5		
	7					3		1
	6					2		
8	2					7		
		3	8	2	4	6		
2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퍼즐로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6	8	7	1	9	2	8	9	2
2	9	8	9	6	8	1	2	7
2	1	9	7	2	8	9	5	6
9	9	2	8	7	6	2	1	8
7	8	2	1	9	9	6	8	9
1	6	8	8	9	2	2	7	9
8	2	9	6	8	1	2	7	9
8	7	6	2	2	9	9	8	1
9	2	1	9	8	7	6	8	2

9	8	6	8	2	7	2	1	9
2	8	9	6	1	8	7	9	2
1	2	7	2	9	9	8	6	6
9	1	8	2	2	2	9	6	7
7	9	2	1	8	6	9	8	2
6	2	8	7	9	9	1	2	8
8	7	1	8	2	2	6	9	9
8	6	9	9	7	1	2	2	8
2	9	2	9	6	8	8	7	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6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의대생 복귀 완료?... “수업 참여시 ‘정원동결’ 약속 지킬 것”

교육부, 전원복귀 기준 ‘강의참여’  
증원여부 결정 1~2주 미뤄질 듯  
의대생 ‘등록 후 수업거부’ 기조  
정부-의대생, 진통 이어질 수도



경희대 의대가 30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당초 경희대 의대는 28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뉴스시

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복귀하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해가는 모양새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2026학년도 증원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와 경북대, 부산대와 충북대, 충남대 등 국립대 의대생들 대다수가 이번 학기 복학을 신청을 완료했다. 중앙대 의대생들도 학기 등록 마감일인 이날

일괄적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28일이 복학원 제출 기한이었지만, 주말 사이 논의를 마친 학생들이 이날 전원 등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의대생들도 전원 등록을 하는 등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

록하는 등 복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는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춰질 전망이

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정원 동결 조건으로 전제한 ‘의대생 전원 복귀’는 학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고,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학은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도 마감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전원 복귀’ 기준은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 규모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등록 마감일이 이뤄지면 4월 초 증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추측됐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향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보다 1~2주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30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말 전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등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대변인은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했을 수 있고, 미등록 또는 수업거부는 학생들에게도 부담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학생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외고·자사고 자소서에 논문·출간·해외활동 언급 금지

## 경기도, 교외선 열차 하루 8회→20회 증편

서울시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입학전형 공정성·신뢰성 확보 일한

2026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외국어 고나 자사고 등의 자기소개서에 논문 실적이나 도서 출간 사항, 해외 활동 등의 기재가 불가능해진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이다. 2026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선발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논문 실적,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등재, 해외 활동 등은 적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 개선안’에 따라이다. 이같은 학생 실적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학교생활기록부엔 기재가 불가했음에도, 지금까지 학교장 선발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입시에선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자기소개서 기재는 물론, 학교장 선발 후기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고사에서도 질문할 수 없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특이배정(지체장애인 등) 지원 대상 기준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발생했던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고 고입전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학년도부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가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들은 신산업 분야인 반도체 장비, 제조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영천고등학교는 전국단위 군인자녀 모집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북 영천고 지원자는 기존 경기 한민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후기고등학교에도 이중 지

원이 가능하다. 다만, 한민고 또는 영천고에 합격할 경우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선발 방식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나뉜다. 전기고등학교는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하며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학교 등이 있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현행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다.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열차는 그동안 무궁화호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도는 2월 1일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 중심으로 변경한 결과 주말 이용객이 711명에서 1,002명으로 이용수요가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 3개월간 승객 이용 패턴을 분석해 평일과 주말 하루 20회 운행시간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중 대곡역 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7시 2분 출발해 7시 56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막차시간은 21시 19분 출발해 22시 13분에 의정부역에 도착한다. 의정부역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6시 55분 출발해 7시 49분 대곡역에 도착하며, 막차시간은 21시 12분에 의정부역을 출발해 22시 6분에 대곡역에 도착한다. 주말(토·일) 및 공휴일 운행시간 관련해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은 동일하나 낮시간대는 서로 다르게 운행되며, 변경된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차권 예매는 28일 금요일 14시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루 동안 교외선 전 구간에서 자유석이나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스 ‘교외하루’ 판매도 시작한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교외선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 나고 왕복운임(5,200원)보다 저렴한 하루 무제한 승차권 ‘교외하루’ 도입으로 여행수요가 높아져 경기북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4월 1일 (화)

음력: 3월 4일

수도권 날씨

5~16℃

해돋이 / 06:18 | 해질 / 18:55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시교육청, 4번째 농촌유학 ‘제주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의 농촌유학 4번째 지역으로 제주도가 확정됐다. 서울 관내 학교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농촌유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과 오는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학기인 9월부터 제주도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

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유학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주도 농촌유학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제주 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 ▲미얀마 강진으로 최소 1700명 사망·3400명 부상 /사진 뉴스시
- ▲“中대응 최우선” 美내부문건...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본격화?

- ▲‘자녀 14명’ 머스크, 韓 출산을 지적하며 “인류 사멸해가”
- ▲중국, 구조대 미얀마 강진 현장서 임산부 등 3명 구조

- ▲英 해리왕자, 자신이 설립한 자선단체 의장과 분쟁중
-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협정 철회 시도...나토 가입 안 돼”



K-만두  
아시아 넘어  
글로벌 입맛 잡는다  
너



Life

HLB  
항암제 기반  
빅파마 도전  
L2



# 책임 더하고, 격차 줄이고... 나눔으로 미래가치 '차곡차곡'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정서 회복 ▲자립 기회 제공 ▲환경 복원이라는 3가지 방향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고 고객가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 ◆사회공헌 확대... '함술이' 큰 인기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사회공헌 비용은 약 99억8000만원으로 전년(약 82억 5000만 원) 대비 17억원 증가했다. 임직원 나눔 봉사활동은 약 5883시간, 누적 기부금은 약 6700만원을 달성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 봉사활동 체험단 '함술이(함께, 앤솔)'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임직원들이 참여형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함술이'는 서울 본사, 대전, 오창 사업장에서 총 148명의 봉사단원을 선발해 매월 1~2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매월 어르신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현충원 묘역정화활동, 벽화그리기 활동, 장애인 원데이 클래스 체험활동 등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임직원들에게 나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마포구 노을공원의 숲을 보호하기 위해 '집뽀통 키우기' 활동을 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100일 동안 씨앗을 길러 다시 노을공원으로 돌려 보내는 활동으로 임직원 42명이 참여했다. 이 씨앗은 노을공원시민모임에서 1~2년 동안 나무로 성장시켜 숲 조성에 활용된다.

지난해 6월에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심기 가족봉사활동'도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아이와 함께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에 직접 나무를 심으며 생태공원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연 보호하면서 가족들과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회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기술원에서는 R&D센터 특성에 맞는 이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이 대전 지역 내 과학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키트를 함께 조립하면서 주



①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이 노을공원 숲 복원을 위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②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이 '찾아가는 꿈나무주니어 공학교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③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 /LG에너지솔루션

행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찾아가는 꿈나무주니어 공학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재능 기부 형태의 나눔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는 매월 조직 별로 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나눔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플로깅 활동(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에어로켓 만들기 등 각 조직에서 원하는 봉사활동 테마를 선택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봉사와 기부를 실현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 기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실현 구조 구축

LG에너지솔루션은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경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배터리 선도업체로서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운영 중이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 지원 제도의 범위를 국내 파트너사에서 해외 파트너사까지 확대했다. 단기 과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현지화 기반의 밸류체인 구축, 신

#### 정서회복·자립기회 제공·환경복원 3가지 방향 맞춘 사회공헌 활동 펼쳐

#### 사내 봉사활동 체험단 '함술이' 운영 대전 지역 꿈나무 위한 '공학교실' 등 봉사·기부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 파트너사 지원 늘려 경쟁력·협력 강화 저금리 혜택 제공 '투자지원펀드' 운영

기술 발굴 지원 등 중장기 과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한 금융 지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반성장 투자지원펀드'가 대표적이다.

이 펀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기초로 협력회사에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펀드로 지난 2020년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파트너사는 투자지원펀드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설비 투자나 운영 비용의 경우 파트너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LG에너지솔루션의 금융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전 정해진 지급 기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

움을 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 하도급심의위원회를 구축해 계약 전, 후로 법 위반 사항이 없는 지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다.

파트너사에 대한 교육, 인력 채용, 복리후생 등 폭넓은 지원도 준비 중에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 및 비즈니스, IT, 언어, 문화, 리더십 등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파트너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기관과 업무 제휴를 논의하고 있으며, 구직 플랫폼에 협력사 전용 채용관을 마련해 인력 채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파트너사와의 공고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품질 및 기술, 생산성 혁신 강화를 위한 상호 보완과 기술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상생 경영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지역사회의 수요와 영향도를 파악해 다각적인 활동을 더욱 전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JTBC, '최강야구' 제작사 서버 끊어...경찰 조사  
▲NBA 클리블랜드, LAC에 5점 차 신승...시즌 두 번째 60승 /사진 뉴스시스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 이집트 월드컵서 단 체전 동메달  
▲'베어 더 뮤지컬' 10주년...진호·박준희 '뉴페이스' 합류

▲4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5월21일 개막  
▲구세군, 토스 기부 1억 2천만원 산불피해지역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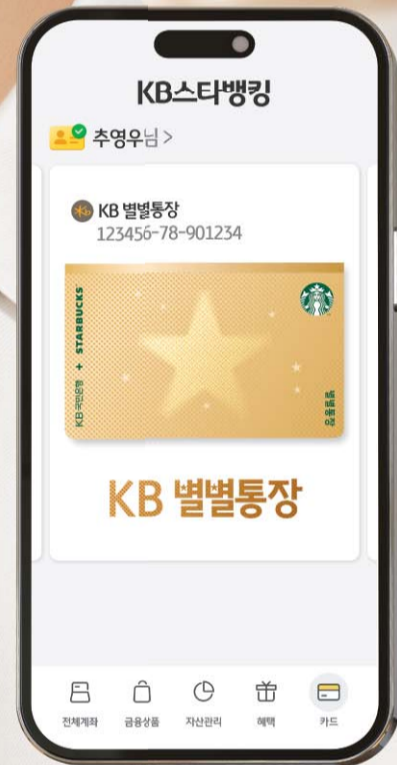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저랑 KB 별별통장 만드실래요?”

KB국민은행과 함께 만나는 금융 혜택부터 스타벅스 리워드까지!

# KB 별별통장



파킹통장 금리 최고 연 2.0% (3백만원 이하, 세전) 이체/출금수수료 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연 최대 12개 지급 스타벅스 별 리워드 월 최대 5개 추가 적립

\*KB 별별통장은 2025년 4월 1일 출시 상품입니다.

[KB 별별통장 유의사항]

-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1계좌)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이 상품은 20만좌 한정 판매하며, 판매한도는 인터넷홈페이지, KB스타뱅킹,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3.27기준, 세금공제 전) \* 기본금리: 연 0.1% (결산일 현재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금과목별 기본금리 적용) \* 우대금리: 연 1.9%P \* 적용 대상: 이 통장을 최초 가입한 경우만 제공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는 제외
- \* 적용 기간: 최초 가입일(통장개설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2,5,8,11월의 둘째 금요일)까지 \* 적용 한도: 이 통장의 결산일 평균잔액 중 3백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적용하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금리만 적용
- 이자는 매년 2,5,8,11월의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더해집니다.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이자: 예금일부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 이 통장은 일괄적으로 2027년 1월 4일에 다른 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자동전환 상품 주요혜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 및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KB 별별통장의 경우 입금(매월 합산 50만원 이상, 기존 급여이체 고객 제외) 및 간편결제 이용 등 지급 요건 충족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월 1매, 연 최대 12매)과 별일 1개, 월 최대 5개를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5-03949 호 (2025.03.24. ~ 2025.10.20.) \* KB국민은행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1095-1호(2025.03.24.), 유효기간 2025.03.24.~2025.10.20. 까지